

바른 국어 생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재

국립국어원 2009-3-17

국립국어원 2009-3-17

바른 국어 생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재

국립국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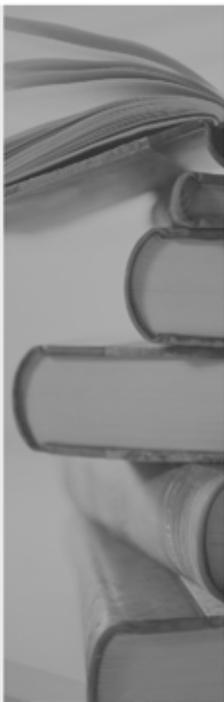
바른 국어 생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재

국립국어원 2009-3-17

바른 국어 생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재



바른국어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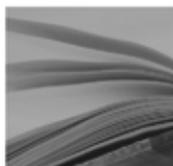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재



국립국어원

차례



국립국어원 소개 ▶ 4

국어문화학교 소개 ▶ 6

- 01. 한글 맞춤법 11
- 02. 띄어쓰기 37
- 03. 표준어 규정 47
- 04. 외래어 표기법 55
- 05.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67
- 06. 공문서 문장 바로 쓰기 73
- 07. 우리말 다듬기 87

국립국어원 소개

1

설립 목적

▶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 활동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함.

- 국어·언어 정책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의 정보 자원 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어 관련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 국어·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2

하는 일

(1)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검색 서비스 및 국어 관련 정보 제공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에서 '표준국어대사

전, ‘국어연감’ 등의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국어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어문 규정, 정기 간행물, 연구 보고서, 소장 자료, 국어 논저, 기사, 공개 자료실 등).

(2) 캐나다 전화(02-771-9909)

-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전화 상담원이 국어 어문 규범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 묻고 답하기: 국립국어원 누리집 게시판에서 국어 관련 상담.

(3) 국어 정보지 발간·배포

- 계간지 ‘새국어생활’: 국어 생활 전반의 관심거리를 다루어, 국민의 국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자 발간·배포함.
-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국어 관련 소식 제공과 국어원 활동 홍보를 위해 달마다 발간하여 전자 우편으로 발송함. 정기 수신 요청: oz121@korea.kr로.

(4)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http://www.malteo.net>)

- 국립국어원에서는 1991년 개원 이래 일본어 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서양식 외래어 등을 순화해 왔음. 2003년 ‘우리말 순화 자료집(합본)’ 발간 이후, 2004년 7월부터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

(5) 디지털 한글 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한글자료 통합 관리 체계.
- 한글문화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역사관, 조형 예술관, 학술 정보관, 교육 문예관, 미래관, 한글 생활관) 운영.

국어문화학교 소개

1

개 관

국어기본법 및 그 시행령의 시행(2005. 7. 28.)으로 인하여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업체 등 공공 기관 종사자의 국어 재교육의 필요성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국어문화학교를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수강생의 다양한 학습 목적과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국의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의 신청으로 국어 전문 강사가 요청 기관에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국어 관련 강좌와 교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2

운영 목적

국어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 사용 능력을 키워 줌으로써,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운영 현황

국립국어원에서는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1992년부터 국어문화학교를 개설하여 운영 하였다. 현재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국립국어원 원내 국어문화 학교 수강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0년에는 1,100여 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약 2,400여 명에 이르러, 9년간 총 1만 5천여 명 이상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는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의 관심과 학습 욕구가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2.	국어반과 번역반을 3일간씩 출판인반, 일반인반, 청소년반, 공무원반으로 운영.
1999. 8.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훈련성적평정대상 전문교육과정 5일 35시간 (5점 가산)을 승인.
1999. 10.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사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 국어반(5일간, 35시간), 번역반(3일간, 21시간) 운영.
2000.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시작.
2005. 10. 24.~25.	서울방송 신입사원 국어 교육(신입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 등 20여 명).
2005. 12. 15.~16.	법제처 국어 전문 과정 교육(법제처 공무원 22명).
2006. 2. 9.~10.	전국 국어상담소 상담원 대상 찾아가는 국어 강좌 공동 연수 개최(전국 10개 국어상담소, 상담원 26명).
2007. 5.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제 개편으로 국어진흥교육팀 신설, 국어문화학교 강의전담 교수 채용.
2009. 5. 4.	직제 개편으로 국어능력발전과에서 국어문화학교 관련 업무 수행.

❖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수강자의 연도별 증가 추이

연 도 \ 과 정	원내 국어문화학교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개설 반	개설 횟수	수강 인원	강의 횟수	수강 인원
2001년	22	19	1,292	123	15,412
2002년	25	19	1,452	185	16,970
2003년	29	16	1,486	157	17,890
2004년	30	17	1,458	176	16,332
2005년	30	17	1,765	195	15,655
2006년	32	18	1,921	190	12,926
2007년	38	22	2,354	253	19,305
2008년	38	22	2,443	148	10,275
합 계	244개 반	128회	14,171명	1,427회	124,765명

4

교육 과정 안내

(1) 국어전문교육과정(원내 국어문화학교)

(가) 공무원 및 일반인반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참조
- 신청 자격: 직업·연령 제한 없음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52 / 전송 (02)2669-9787
 - ※ 공무원의 경우, 교육 시간 35시간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장 바르게 쓰기, 공문서 바로 쓰기, 글쓰기 지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이해와 훈련, 대화의 기법, 우리말 다듬기,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시청각 학습 등

(나) 교사반

- 교육 기간: 동계, 하계 방학 중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 신청 자격: 초·중·고 교사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52 / 전송 (02)2669-9787
 - ※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이 교사 직무 연수 기관으로 지정받음
 - ※ 교육 시간 30시간, 교육 점수 2점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이론과 실제, 구별해야 할 말,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학교 생활문 쓰기, 국어 논술의 이해
 - 말을 바르게 하기: 청소년과의 대화법 등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신청 기간: 전월 15일까지 접수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 신청 요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 수강 인원 30명 이상
-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어디나 가능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29 / 전송 (02)2669-9787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표준 발음법, 효과적인 말하기 등
 - 언어와 문화: 언어 예절, 우리말과 국어문화 등
- ※ 강의료 및 교재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

(3)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을 통하여 2008년부터는 ‘한글 맞춤법’ 강의를, 2009년부터는 ‘공문서 바로 쓰기’, ‘국어 순화’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01

한글 맞춤법

1. 한글 맞춤법의 원리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¹를 소리대로 적되², 어법에 맞도록³ 함을 원칙으로 한다.('한글 맞춤법' 제1항)

- (1)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를 올바르게 표기하는 법이다.
- (2) 표준어를 표기하는 원리는 두 가지다. 첫째, 표준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가]는 '가'로 적고 [나]는 '나'로 적는다. [꼬치], [꼰만], [꼬또]로 소리 나는 표준어는 '꽃이/꼬치', '꽃만/꼰만/꼰만', '꽃도/ 또/꼬또' 등으로 적을 수 있다.
- (3) 그러나 소리 나는 대로만 적을 경우 '花'를 의미하는 단어가 '꽃/꼳/꼰/'과 같이 여러 형태가 되어 언어생활이 혼란스러워지고 독서의 능률도 떨어지게 된다.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꽃이', '꽃만', '꽃도'와 같이 적으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울 것이다.

- ① 꼬치, 꼬츨, 꼬또, 꼰만 / 갑씨, 갑쓸, 갑또, 갑만 / 떡기, 떡글, 떡또, 떡만
- ② 꽃이, 꽃을, 꽃도, 꽃만 / 값이, 값을, 값도, 값만 / 떡이, 떡을, 떡도, 떡만

또한 소리대로만 적기로 한다면 [반드시]로 소리나는 ‘반듯이[直]’와 ‘반드시[必]’의 구별이 표기상 불가능하지만, ‘반듯하다’와의 관련성을 따져 ‘반듯이’와 ‘반드시’로 나누어 적으면 표기에 따라 의미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어법에 맞도록 함’이란 어떤 한 단어의 원형을 고려하여 표기에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한글 맞춤법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어떤 단어의 원형을 고려하는 일이다. 어떤 말을 표기할 때 그 모양과 의미가 유사한 다른 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서로 관련지을 수 있다면 원형을 살려 쓰고 그렇지 않다면 소리 나는 대로 쓰게 된다. 예컨대 [깨끄시 사용해라]에서 [깨끄시]라는 말은 ‘깨끗하다[깨끗하다]’와 관련이 있으므로 그 원형인 ‘깨끗’을 고려하여 ‘깨끗이, 깨끗하다’로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지그시 누르다]에서 ‘슬며시 힘을 주는 모양’을 의미하는 [지그시]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지긋지긋, *지긋하다’와 같은 관련 단어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 원형을 고려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지그시’로 적게 된다. 한편, [나이가 지그시 든 노인]의 [지그시]는 ‘나이가 비교적 많아 듬직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지긋하다’가 있으므로 그 원형을 밝혀 ‘지긋이’로 적는다.

2. 한글 맞춤법 익히기

(1) 같아/*가애(한글 맞춤법 제15항)

“좋은 것 같아.”의 ‘같아’를 [*가태]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어간 ‘같-’에 어미 ‘-야’가 결합된 것이므로 [*가태]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다. ‘같아’로 적고 [가태]로 발음해야 한다. ‘같아, 같아요, 같았어, 같았다’와 같이 활용한다.

❗ 바라/*바래

(2) 거친/*거칠은(한글 맞춤법 제18항)

‘ㄹ’ 받침을 가진 용언에 관형형 어미가 연결되면 ‘ㄹ’이 탈락되는 것이 원칙이다. ‘*거칠은, *날으는, *눅슬은’이 아니라 ‘거친, 나는, 눅슨’으로 적어야 한다. ‘*날으는, *거칠은’ 등이 가능하려면 ‘*놀이터에서 놀으는’, ‘*칼을 갈으는’ 등도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놀으는, *갈으는’은 잘못된 활용형이다.

❗ 낫설다(→ 낫신), 내걸다(→ 내건), 절다(→ 전)

- ㄱ. 하늘을 {나는/*날으는} 비행기, 하늘을 {날/*날을} 것 같은 기분
- ㄴ. {거친/*거칠은} 피부, 피부가 {거치니/*거칠으니} 로션을 발라라.
- ㄷ. 옥외에 {내건/*내걸은} 현수막, 현수막을 {내거니/*내걸으니} ……
- ㄹ. {녹슨/*녹슬은} 철모, 철모가 {녹스니/*녹슬으니} ……

그러나 ‘끓은 달걀’을 ‘*곤 달걀’로 줄여 쓰는 것은 옳지 않다. ‘끓은’의 기본형은 ‘끓다’(속이 물크러져 상하다)이고 이 말의 ‘ㄸ’ 받침은 관형형 어미 앞에서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불은 국수’, ‘홍수로 불은 강물’의 ‘불은’은 기본형이 ‘분다’(물에 젖어 부피가 커지다,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이므로 ‘*분 국수’가 될 수 없다. 이는 ㄷ불규칙 용언인 ‘듣다, 싣다’가 ‘어제 들은 음악’, ‘짐을 싣은 마차’ 등과 같이 활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분다’는 ‘분고, 분지, 분계, 불으면, 불어서, 불었다, 불은, 불을, ……’과 같이 활용한다.

(3) 금세/*금새

‘금세’는 ‘금시(今時)+에’가 줄어든 말이므로 ‘금세’로 적어야 한다. ‘어느새, 요새’를 생각하여 ‘*금새’라고 적지만 이는 잘못이다. ‘어느새, 요새, 밤새’의 ‘새’는 ‘사이’가 줄어든 것이다.

- ㄱ. 효과가 금세 나타났다. / 소문이 금세 퍼졌다.
- ㄴ. 그 조그맣던 꼬마가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 밤새 비가 내렸나 봐.

(4) 깨끗이/*깨끗히(한글 맞춤법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 ㄱ. ‘이’로 적는 경우
 - ① ‘이’로만 나는 것: 가뜩이, 고즈넉이, 그윽이, 깊숙이, 끔찍이, 길쭉이, 멀찍이, 나직이, 느직이, 두둑이 ……
 - ② ㅅ 받침 뒤: 깎듯이, 깨끗이, 느긋이, 둥긋이, 따듯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

- ③ 형용사 뒤: 가까이, 가벼이, 고이, 괴로이, 날카로이, 쉬이, 새삼스레 ……, 같이, 굳이, 많이, 적어, 헛되이 ……
- ④ 부사 뒤: 꼼꼼이, 더욱이, 오뚝이, 일찍이 ……
- ⑤ 첩어 명사 뒤: 간간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

ㄴ. ‘히’로 적는 경우

- ①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익히, 작히, 족히, 특히, 엄격히, 간곡히, 까마득히, 머쓱히, 막막히, 푹푹히 ……
- ②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

(5) 나무꾼/*나뭇꾼/*나뭇꾼(한글 맞춤법 제54항)

‘나무꾼’이 옳은 표기다. ‘뉘시꾼’, ‘사기꾼’ 등도 마찬가지다. ‘때깎’, ‘빚깎’, ‘생깎’ 등도 ‘*땃깎’, ‘*빚깎’, ‘*생깎’ 등으로 적어서는 안 된다. 단 ‘젓깎’은 ‘*젓깎’이 아니라 ‘젓갈’이 옳다.

❗ 심부름꾼, 익살꾼, 일꾼, 장꾼, 장난꾼, 지게꾼, ……

(6) 늘이다/늘리다(한글 맞춤법 제57항)

‘늘이다’는 ‘힘을 가해서 본디의 길이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는 의미이고, ‘늘리다’는 ‘늘게 하다’는 의미로 각각 ‘고무줄을 늘이다’, ‘용수철을 늘이다’와 ‘재산을 늘리다’, ‘실력을 늘리다’와 같이 쓰인다. ‘바지를 (늘이다/늘리다)’의 경우는 옷감을 덧대어서 길게 하는 경우는 ‘늘리다’이지만 탄력성이 있는 바지를 당겨서 길게 한다는 뜻일 때는 ‘늘이다’가 된다. ‘수출량, 강의 시간’ 등은 ‘늘리다’와 함께 쓰일 수 있다.

(7) 더욱이/*더우기(한글 맞춤법 제25항)

‘더욱이’, ‘일찍이’, ‘오뚝이’는 ‘더욱’, ‘일찍’, ‘오뚝’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더우기’, ‘*일찍기’, ‘*오뚜기’로 적지 않는다. ‘*일찍기 문명을 꽃 피운 나라’와 ‘오늘은 일찍이 일어났다.’를 구분하는 일이 있지만 어느 경우나 ‘일찍이’로 적는다. 그러나 ‘반듯하다’와 관련이 있는 ‘반듯이’와, 관련이 없는 ‘반드시[必]’는 구분하여 적는다.

(8) 덮이다/*덮히다

동사 ‘덮다, 짚다’의 피동형은 ‘덮이다, 짚이다’이다. 형용사 ‘높다’의 사동형은 ‘높이다’가 된다. ‘-히-’는 주로 ‘ㄱ’, ‘리’, ‘ㅈ’, ‘ㅂ’ 받침을 가진 말에 결합한다.

[참고] 먹히다, 막히다 / 굶히다, 읽히다 / 넓히다, 밝히다 / 굽히다, 입히다, 잡히다

(9) 되라/되랴(한글 맞춤법 제35항)

‘되랴’와 ‘되랴’의 차이는 전자는 ‘되- + -(으)랴’이고 후자는 ‘되- + -어랴’라는 점이다. ‘되-’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어 줄어드는 경우 ‘되’가 된다. “어머니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되- + -(으)라고] 말씀하셨다.”와 “성실한 사람이 되랴[되- + -어랴].”와 같이 구분된다. 한편 ㄷ, ㅈ과 같이 의고체의 명령형인 ‘-(으)랴’가 연결되면 ‘되랴’와 같은 형태도 가능하다.

‘되다’의 활용형 ‘되어’가 ‘되’로 줄어드는 것은 ‘하다’의 활용형 ‘하여’가 ‘해’로 줄어드는 것과 똑같은 환경이다. 그러므로 ‘하다’의 활용형 ‘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면 ‘되(되어)’가 가능하다.

[참고] 괴다, 피다, 뇌다, 되다, 뵈다(‘모이다’의 준말), 뵈다, 쇠다, 썬다, 죄다, 쩌다

ㄱ. 되지못한 짓은 하지 말아야 돼(되- + -어). ※ 해

돼먹지 못한 놈 / 막돼먹은 인간은 되지 마라.

※ 해 먹다 / 하지 마라

그가 과연 회장이 될까? / 되었어(됐어)/되었네(됐네).

※ 할까 / 했어 / 했네

후보 가운데 누가 회장으로 선정되어도(선정돼도) 좋다. ※ 해도

얼굴이 안돼 보인다. / 그 사람 참 안됐군. ※ 했군

공부 더 해도 돼요? /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 해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돼라). ※ 해라

나. 어머니께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하라고

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 훌륭한 사람이 되래되- + -(으)라. ※ 하라

르. 선생님, 내일 봐어요/배요/*뵈요.

이번 명절은 고향에서 쇠어요/쇄요/*쇠요?

(10) 디뎠다/*딛었다(한글 맞춤법 제32항)

‘딛다’는 ‘디디다’의 준말로, ‘딛고, 딛자, 딛게’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이 될 수 있지만 ‘*딛어’, ‘*딛었다’, ‘*딛으며’, ‘*딛어서’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이 될 수 없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디디다’와만 결합하여 ‘디디어(디데), 디디었다(디뎠다)’로 활용한다. ‘가지다/갖다’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미 \ 기본형	-고	-지	-니?(의문)	-어/아	-으니	-(으)며	-(으)ㄴ
디디다	디디고	디디지	디디니?	디디어 (디데)	디디니	디디며	디딘
딛다	딛고	딛지	딛니?	*딛어	*딛으니	*딛으며	*딛은
가지다	가지고	가지지	가지니?	가지어 (가져)	가지니	가지며	가진
갖다	갖고	갖지	갖니?	*갖어/ *갖아	*갖으니	*갖으며	*갖은

이와 조금 다른 것으로 ‘머무르다/머물다’, ‘서투르다/서툴다’, ‘서두르다/서둘다’ 등이 있다. ‘머물다, 서툴다, 서둘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중에서 ‘-어’와만 결합하지 못한다.

기본형 어미	-고	-지	-니?(의문)	-어/아	-(으)니	-(으)며	-(으)ㄴ
머무르다	머무르고	머무르지	머무르니?	머물러	머무르니	머무르며	머무른
머물다	머물고	머물지	머무니?	*머물어	머무니	머물며	머문
서투르다	서투르고	서투르지	서투르니?	서툴러	서투르니	서투르며	서투른
서툴다	서툴고	서툴지	서투니?	*서툴어	서투니	서툴며	서툰

(11) -르걸/*-르겔

‘집에 갈까?’, ‘불의에 굴복할쏘냐?’, ‘어찌 할꼬?’의 ‘-르까’, ‘-르쏘냐’, ‘-르꼬’를 제외하고는 된소리로 끝나는 어미는 없다.

- ㄱ. 이미 {도착했을걸/*도착했을겔.
- ㄴ. 내가 해 {줄게/*줄겔.
- ㄷ. 점심은 국수를 {먹을까/*먹을가}?

(12) -(으)로써/-(으)로써(한글 맞춤법 제57항)

‘-로써’는 자격, ‘-로써’는 도구나 수단 의미로 쓰인다.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자.’, ‘친구로서 나를 욕하다니!’와 ‘칼로(써) 연 필을 깎는다.’, ‘술로(써) 인생을 탕진했다.’가 구분된다. ‘-(으)므로(써)’와 ‘-므로’도 구분해서 써야 한다. ‘-(으)므로(써)’는 ‘써’가 붙을 수 있지만 ‘-므로’에는 붙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그는 부지런하므로 돈을 많이 벌었다.’와 ‘그는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돈을 많이 벌었다.’가 구분된다.

(13) 마라/*말아라(한글 맞춤법 제18항)

‘말다’에 ‘-아(라)’의 명령형 어미가 결합한 ‘말-아라/말-아’는 ‘마라/마’로 줄어든 형태가 표준어이다. 하지만 ‘-(으)라고’가 결합할 경우에는 ‘말라고’가 된다.

- ㄱ. 못된 짓은 하지 마라/마.
- ㄴ. 어머니께서 불량 식품은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ㄷ. 밤새우지 말란 말이야.

(14) 맞추다/맞히다/마치다(한글 맞춤법 제55항, 제57항)

‘맞추다’는 ‘기준이나 다른 것에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맞히다’는 ‘맞다’의 사동사로 ‘적중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답을 맞히다’와 ‘답을 맞추다’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말이 된다. “내가 열 문제 모두를 □□□□.”라고 할 때는 “*맞췄어”가 아니라 ‘맞혔어’라고 해야 한다. 또한 “상자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 보세요.”에는 ‘알어맞혀’로 써야 한다. 하지만 “내가 쓴 답과 모범 답안을 □□□□ 보았다.”라고 할 때는 ‘비교하다’의 의미인 ‘맞추어(맞춰)’로 써야 한다.

‘마치다’는 “벌써 일을 마쳤다.”와 같이 ‘어떤 일을 마지막으로 끝내다’의 의미로 쓰인다.

(15) 머릿기름/*머리기름(한글 맞춤법 제30항)

ㄱ. ‘사이시옷’을 표기하기 위한 선결 조건

- ① 합성어(명사)의 두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 이상은 고유어일 것.
- ②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

ㄴ. 위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다음의 음운 현상이 나타나면 ‘ㅅ’을 받쳐 적음.

- ① 뒷말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가 [ㄱ, ㄷ, ㅂ, ㅅ, ㅈ]로 변할 때(즉,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할 때)

→ 콧 + 구멍, 기름, 김, 대, 등, 바람, 방울, 병, 부리, 소리, 속, 수염, 컷병, 기댓값, 대푯값, 등긫길, 고깃국, 만뎛국, 맥줫집, 머릿돌, 바닷가, 보랏빛, 빨랫줄, 성뎛길, 시냇가, 장뎛빛, 전긫불, 조긫살, 찻잔, 고긫집, 횃집

-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 콧날, 콧노래, 콧물, 콧마루, 뺏머리, 수뎛물, 뎛마루

-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즉, 모음 사이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 꺽읷, 나뎛읷, 베긫읷, 옷읷, 예삿읷, 사삿읷

ㄷ. 예외(다음의 6개 한자어에서만 ‘ㅅ’ 표기 허용)

- 곳간(庫間), 차간(車間), 퇴간(退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횡수(回數)
- ※ ‘기차간(汽車間, ← 기차 + 간), ‘전세방(傳貰房, ← 전세 + 방)’은 위 6개 한자어 외의 것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음.
- ㄹ. 위 ㄴ.의 음운 현상이 없으면(즉, 소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ㅅ’을 표기하지 않음.
 - 머리말, 머리글, 나무다리, 인사말
- ㅁ. 된소리, 거센소리로 시작하는 뒷말 앞에서는 ‘ㅅ’을 표기하지 않음.
 - 쥐뿔, 뒤풀이, 위쪽, 위칸, 뒤쪽, 뒤편
- ㅂ. 외래어와 고유어의 결합일 경우에도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음.
 - 핑크빛, 피자집 등

(16) **머칠/*멧일/*멧 일**(한글 맞춤법 제27항)

한글 맞춤법 제27항의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삼는다면 ‘멧 + 일’은 ‘멧일’로 적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같은 항의 [붙임] 항목에는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라고 하고 예로 ‘골병, 골탕, 머칠’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이 한글 맞춤법은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멧일’이 아니라 ‘머칠’로 적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다음 예로 미루어 보면, ‘멧’ 다음에 ‘일(日)’이 오면 [머딜]로 소리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 ㄱ. 멧 월 → [머월], 멧 인 → [머딘], 멧 억 → [머덕], 멧 원 → [머원]
- ㄴ. 멧 향 → ([면향]) → [머향], 멧 해 → ([면해]) → [머태], 멧 호 → ([면호]) → [머토]
- ㄷ. 멧 날 → ([면날]) → [머날], 멧 년 → ([면년]) → [머년], 멧 묶음 → ([면무꿈]) → [머무꿈]
- ㄹ. 멧 일(日) → *[머딜]

‘멧’ 다음에 명사가 오면 끝소리의 ‘ㅅ’은 중화되어 ‘ㄷ’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ㄱ.과 같이 ‘몇 + 월’은 [며칠]이 아니라 [며월]이 되고, ‘몇 + 억’은 [며척]이 아니라 [며텍]이 되는 것이다. 이는 ‘옷 + 안’이나 ‘꽃 + 위’, ‘날 + 알’이 [오산], [꼬취], [나탈]이 아니라 [오단], [꼬뒤], [나달]로 소리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몇 + 일’의 구성은 [며딜]로 소리가 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며딜]이라고 하지 않고 [며칠]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은 이 말이 ‘몇 + 일(日)’의 구성이 아님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며칠]은 현대 국어에서 그 어원(원형)을 밝힐 수 없는 것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며칠’이라고 적게 되는 것이다.¹⁾

‘며칠’은 또 다시 ‘날’과 결합하여 ‘며칠날’이라는 합성어를 만들기도 한다 (“아버님 제사가 5월 며칠날이지?”). 일부에서는 ‘몇 일’과 ‘며칠’을 의미를 구분 해서 적는 일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어떤 뜻이든지 ‘며칠’이라고 써야 한다.

- ㄱ. *오늘이 몇 월 몇 일이지?(×) → 오늘이 몇 월 며칠이지?(○)
- ㄴ. 며칠 동안 휴가를 다녀왔다.(○)
- ㄷ.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17) 문득/문뜩(한글 맞춤법 제5항)

다음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 보자.

- ㄱ. 어느 날 문득 고향 생각이 났다.
- ㄴ. 나는 문뜩 고개를 들어 창 너머 하늘을 보곤 했다.

대부분의 화자들은 ‘문득’을 [문뜩]이라고 소리 내어 읽는다. 하지만 ‘문득’은

1) 사실 ‘며칠’은 중세 국어에서 이미 현대 국어와 같이 두 가지 의미(1. 그달의 몇째 되는 날, 2. 몇 날)로 모두 쓰이던 말이었다. 이 말이 현대 국어 ‘며칠’에까지 전해져서 쓰이는 것이다.

ㄱ. 오늘이 며칠고 《朴通事諺解(1677년) 중:53》

ㄴ. 며츠를 설워 韓리리노 《翻譯朴通事(1517년) 상:75》

列 列 劣 烈 裂	ㄴ을 제외한 자음이 나 외래어 다음	렬	격렬(激烈), 극렬(極烈), 열렬(熱烈) / 결렬(決裂), 멸렬(滅裂) / 졸렬(拙劣), 용렬(庸劣) / 행렬(行列), 정렬(整列), 병렬(並列)
	모음, ㄴ 받침 다음	열	선열(先烈), 치열(熾烈) / 균열(龜裂), 분열(分裂) / 우열(優劣) / 계열(系列), 대열(隊列), 반열(班列)

(20) 부딪치다/부딪히다(한글 맞춤법 제57항)

‘부딪치다’는 ‘힘차게 부딪다’의 뜻이고 ‘부딪히다’는 ‘부딪음을 당하다’의 뜻이다. 그러므로 ‘자전거에 부딪쳤다.’는 상호작용으로 자전거와 충돌했다는 의미로, ‘자전거에 부딪혔다.’는 피동적으로 자전거에 충돌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부딪치다’는 ‘마주라는 부사가 와도 자연스러우나, ‘부딪히다’는 그렇지 않다.

- ㄱ.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 ㄴ. 길을 가다가 자전거와 마주 부딪쳤다.
- ㄷ. *길을 가다가 자전거에 마주 부딪혔다.

‘그들의 결혼은 부모의 반대에 □□□□.’와 ‘졸업과 동시에 냉혹한 현실에 □□□□.’와 같은 문장에서는 ‘부딪혔다’로 써야 한다.

(21) 붙이다/부치다(한글 맞춤법 제57항)

‘붙이다’와 ‘부치다’는 구별되는 말이다. 대체로 ‘붙다’의 뜻이 남아 있는 경우는 ‘붙이다’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치다’로 적는다.

- ㄱ. 붙이다: 반창고를 붙이다 / 불을 붙이다 / 흥정을 붙이다 / 감시원을 붙이다 / 주석을 붙이다 / 번호를 붙이다 // 따귀를 올려붙이다 // 소매를 견어붙이다 // 친구를 범인으로 몰아붙이다
- ㄴ. 부치다: 편지를 부치다 / 안건을 회의에 부치다 / 극비에 부치다 /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치다 / 식목일에 부치는 글 // 기운이 부치다 // 논밭을 부치다 // 부침개를 부치다 // 부채를 부치다

(22) 사귀어/*사겨/*사귀

“둘이 한번 사귀어 봐.”의 ‘사귀어’는 *사겨/*사귀로 줄어들 수 없다. 마찬가지로 ‘바뀌어’ 역시 *바껴, *바뀌 등으로 줄어들 수 없다. 흔히 ‘언제부터 *사졌니? / 짝이 또 *바졌어?’ 등으로 쓰지만 잘못이다. ‘사귀었니, 바뀌었어’로 써야 한다.

[참고] 지저귀어, 바뀌어, 나누어, 아위어, 비취어, 할퀴어

(23) 시원찮다/*시원찮다(한글 맞춤법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그러므로 ‘시원하지 않다’는 ‘시원치 않다 → *시원찮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원찮다’와 같이 적는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찮이나 *잖과 같이 적는 일은 없고 모두 ‘찮’이나 ‘잖’으로 적는다.

적지 않다 → 적잖다	만만하지 않다 → 만만찮다
그렇지 않다 → 그렇잖다	변변하지 않다 → 변변찮다
두렵지 않다 → 두렵잖다	성실하지 않다 → 성실찮다

(24) 벌에 쏘였다/씩었다(한글 맞춤법 제37항)

동사의 사동형 혹은 피동형의 준말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한글 맞춤법 제37항에 근거한다. 한글 맞춤법 제37항에서는 “ㅏ, ㅑ, ㅓ, ㅕ, ㅗ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ㅕ, ㅑ, ㅓ, ㅕ, ㅗ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밝혀 ‘쏘이다 ~ 썩다’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꼬다, 눅다, 뜨다, 보다, 쓰다’ 등에 사동 혹은 피동의 접미사 ‘-이-’가 결합한 ‘꼬이다, 누이다, 뜨이다, 보이다, 쓰이다’ 등은 모두 ‘꽤다, 뉘다, 띄다, 뵈다, 썩다’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표기가 모두 가능한 것이다.

- ㄱ. (쏘- + -이- →) 쏘이다 ~ 썩다: 벌에 손등을 {쏘였다/썩었다}.
- ㄴ. (꼬- + -이- →) 꼬이다 ~ 꽤다: {몸이/일이} 점점 {꼬였다/꽤었다}.

- ㄷ. (눕- + -이- →) 누이다 ~ 뉘다: 아이를 침대에 {누였다/뉘었다}.
- ㄹ. (뜨- + -이- →) 뜨이다 ~ 띄다: 아침에 눈이 번쩍 {뜨였다/띄었다}.
- ㅁ. (쓰- + -이- →) 쓰이다 ~ 씩다: 글씨가 {쓰여/씩어} 있는 공책.

다만, ‘고이다/괴다’의 쌍에서 도출되는 것이지만, ‘고인돌’은 쓸 수 있고 ‘귤돌’은 쓸 수 없다. 이는 표준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기인한 것이다.

(25) 아니꼬워/*아니꼬와(한글 맞춤법 제18항)

ㅂ변칙 용언에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는 어간 말음의 ‘ㅂ’이 ‘ㄴ’로 바뀌므로, ‘안타깝다’, ‘가깝다’, ‘아니깝다’ 등은 ‘*안타까와’, ‘*가까와’, ‘*아니꼬와’가 아니라 ‘안타까워’, ‘가까워’, ‘아니꼬워’ 등으로 적는다. 다만 ‘곱-[麗]’, ‘돕-[助]’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그러므로 ‘곱-’과 ‘돕-’은 ‘고와, 고왔다’와 ‘도와, 도왔다’처럼 적는다.

- ㄱ. 가깝다: 가깝고 가깝지 가까워 가까우니 가까운
 자랑스럽다: 자랑스럽고 자랑스럽지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우니 자랑스러운
- ㄴ. 곱다: 곱고 곱지 고와 고우니 고운
- 돕다: 돕고 돕지 도와 도우니 도운

(26) 아니요/아니오

‘아니’라는 형태를 가지는 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

- ㄱ. 아니(부사, 副詞 안): 밥을 아니(안) 먹다. / 아니(안) 슬프다.
- ㄴ. 아니(감탄사): 밥 먹었니? → 아니, 아직 못 먹었어. / 음, 먹었어.
 식사하셨어요? → [아니요(아뇨)], 아직 못 먹었어요. /
 예, 먹었어요.
- ㄷ. 아니다(형용사): 직원이 [아니야/아니오/아닙니다/아니었어]. / 직원이 아닌 사람

ㄱ.의 ‘아니’는 그 문장에 쓰인 서술어의 의미를 부정하는 부사이다. 이 ‘아니’는 줄어들어 ‘안’으로도 쓰인다. ㄴ.의 ‘아니’는 긍정·부정을 물어보는 의문문

(판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며 감탄사로 분류된다.(이 ‘아니’는 ‘안’으로 줄어들 수 없다.)

ㄷ.의 ‘아니다’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해체의 어미 ‘-야’, 하오체의 어미 ‘-오’, 합쇼체(하십시오체)의 어미 ‘-ㅂ니다’ 등의 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도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로 쓰인다.(이 ‘아니다’ 역시 ‘안’으로 줄어들지 못한다.)

위에서 보면 우리가 부정의 대답으로 사용하는 것은 ㄴ.의 ‘아니’(감탄사)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의 반대말로 쓰는 [아니오]라는 말은 감탄사 ‘아니’에 해요체의 보조사 ‘요’가 결합된 ‘아니요’로 적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 문제에 ‘예/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와 같은 문장에서는 ‘아니오’를 써야 한다. ‘아니오’는 줄어서 ‘아뇨’가 되기도 한다.

※ ‘요’와 ‘오’의 구분 방법

국어의 특성상 조사(격조사, 보조사)는 상황에 따라 생략해도 말이 되지만 (예 ㄴ. 참조) 용언에 결합하는 어미는 어느 하나라도 생략하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예 ㄷ. 참조). 한편, 보조사는 다른 조사와 겹칠 뿐만 아니라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에도 두루 결합될 수 있다(예 ㄷ.~ㄱ. 참조).

- ㄱ. 나는 밥을 먹었어. / 철수가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 ㄴ. 나 밥 먹었어. / 철수 시골 다녀왔습니다. → (보)조사 생략
- ㄷ. 나는 밥을 {*먹/*먹었} / 철수 시골 {*다녀오/*다녀왔습니} → 어미 생략
- ㄷ. 철수가요 어제는요 학교에서도요 만화책을요 보았어요. → 조사 겹침 / 해요체
- ㄹ. 비행기가 {빨리도/빨리만/빨리느} 나는구나. → 부사 + 보조사
- ㅁ. 그런 소문을 {들어도/들어만/들어느} 보았어. → 동사 + 보조사
- ㅂ. 그는 친구를 {좋아도/좋아만/좋아느} 한다. → 형용사 + 보조사
- ㅇ. 이리로 앉으오. / 좋도록 하오. / 이 문을 여시오.
- ㅈ. 이리로 앉아요. / 좋도록 해요. / 이 문을 열어오.

그런데 ‘요’는 해요체의 보조사이고 ‘-오’는 하오체의 어미이므로, ‘요’는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지만 어미 ‘-오’를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못한다. 이 둘을 구별하는 손쉬운 방법은 바로 이 차이를 구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즉, 그 ‘요/오’를 생략해서 문장이 성립하면 보조사 ‘요’가 쓰인 것이고 성립하지 않으면 어미 ‘-오’가 쓰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오.에서 ‘-오’를 생략하면 문장이 모두 비문이 되지만 스.에서는 ‘요’를 생략하더라도 해요체에서 해체로 존재의 등급은 낮아지지만 문장 자체는 성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안녕하세요/안녕하셔요’의 ‘-(으)세요/-(으)셔요’는 복수 표준어이므로 둘 다 인정되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연결형의 ‘이요’이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요 그것은 공책이다.”처럼 연결형으로 쓰일 때는 ‘이요’를 사용하고 연결형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은 내 책이오.”처럼 ‘이오’(서술격 조사 ‘이-’ + 하오체 어미 ‘-오’)를 쓴다(한글 맞춤법 제15항).

(27) 아무튼/*이렇든(한글 맞춤법 제40항)

용언의 활용형 가운데 하나의 형태만이 굳어져서 부사로 쓰이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아무튼’은 ‘아뭉-’에 어미 ‘-든’이 결합한 형태만 쓰이고 그 이외의 활용형은 전혀 쓰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부사로만 쓰이므로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것이다.

[참고]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하지만 ‘이렇든, 그렇든, 저렇든, 아무렇든, 어떻든’ 등은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아무렇다, 어떻다’의 활용형이므로 ‘-튼’으로 적지 않는다.

한편, ‘아무튼’은 ‘의견이나 일의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떻게 되어 있든’의 뜻으로 ‘어떻든, 어쨌든, 여하튼, 하여튼’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28) 안/않-

“다시는 담배를 안/*않 피우겠다.”에서는 ‘안’이 옳다. ‘안’은 ‘아니’의 준말로 부사이고, ‘않-’은 ‘아니하-’의 준말로 ‘않다’, ‘않았다’, ‘않겠다’와 같이 활용하

는 용언이다. 즉, ‘안’은 다른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고, ‘않-’은 문장의 서술어로 “내가 하지 않았다.”처럼 ‘-지 않-’의 구성으로 주로 쓰인다.

- ㄱ. 다시는 안 만날 거야. /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 ㄴ. 안 보이니? / 보이지 않니?

(29) 안치다/않히다(한글 맞춤법 제57항)

‘안치다’는 기원적으로는 ‘앉다’에서 온 것으로 보이나 그 의미의 관련이 떨어진 것으로 보아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안치다’는 ‘끓이거나 찢 물건을 솥이나 시루에 넣다’는 뜻으로 ‘쌀을 안치다’, ‘밥을 안치다’와 같이 쓰인다. 반면 ‘앉히다’(‘앉다’의 사동형)는 ‘앉게 하다’의 뜻이므로 ‘아이를 자리에 앉히다’와 같이 쓰인다.

(30) 어떡해/어떻게/*어떻해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로 문장을 맺는 서술어이고, ‘어떻게’는 ‘어떻-’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한 활용형으로 다음에 서술어가 와야 한다.

- ㄱ.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 (※ ‘어떻게 하다’가 줄어들어 ‘어떡하다’가 됨.)
어떡하든 성공해야 해. / 어떡하면 좋아. / 어떡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 / 나 어떡해? 어떡하지?
어떡하긴? 이제 와서 어떡하겠어? / 아이들은 어떡하고 있어?
- ㄴ. ‘어떡하다(<어떻게 하다<어떠하게 하다)’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말
이력하다(이렇게 하다), 그럭하다(그렇게 하다), 저럭하다(저렇게 하다)
→ 이력하면 어떡하니? 그럼 그럭해도 돼? 이력하나 저력하나 혼나는 건 마찬가지.

그러므로 ‘이 문제를 *어떡해 풀지?’는 잘못이다. ‘어떻게’로 써야 한다.

❗ 이력하다(이렇게 하다), 그럭하다(그렇게 하다), 저럭하다(저렇게 하다)

(31) 웬지/*웬지

“오늘은 웬지 기분이 좋아.”에서 ‘웬지’는 ‘왜인지’가 줄어서 된 말이므로 ‘웬지’로 적는다. 하지만 “웬 떡이냐?”, “이게 웬 날벼락이냐?”, “봄인데 웬 눈이 이렇게 많이 오지?”, “웬 사람이 널 찾아왔어.”라고 할 때는 ‘웬’으로 적는다. ‘웬’은 ‘어찌 된, 어떠한’을 뜻하는 관형사이다.

❗참고 웬걸, 웬만하다, 웬만큼, 웬일

(32) 이에요/이어요

‘이에요’와 ‘이어요’는 복수 표준어로서 ‘이다’에 ‘-에요’, ‘-어요’가 붙은 말이다. 다시 ‘-어요’는 어미 ‘-어/-아’에 보조사 ‘요’가 결합한 것으로 ‘하다’ 어간 뒤에서는 ‘-여요’로 실현되고 ‘이다, 아니다’ 뒤에서는 ‘-에요’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요/이어요’의 ‘이’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체언 뒤에만 붙는데,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에요/여요’로 줄어든다. 한편 ‘아니다’는 용언이므로 ‘이에요/이어요’가 연결될 수 없고 어미인 ‘-에요/-어요’가 연결되므로 ‘아니예요(아네요)/아니어요(아녀요)’와 같이 쓸 수 있다. ‘아니다’에 ‘이에요’와 ‘이어요’가 붙은 ‘*아니예요’, ‘*아니어요’는 잘못이다.

경우	환경	용례
인명	받침 있는 인명	영숙이 + 이에요 → 영숙이 예요 영숙이 + 이어요 → 영숙이 여요 국어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사람 이름을 직접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접미사 ‘-이’가 붙는다. ‘영숙이가, 영숙이를, 영숙이도, 영숙이에게, 영숙이는…….’ 그러므로 우리가 [영수기 예요] 처럼 말하는 것은 조사결합체인 ‘이에요’가 ‘영숙’ 다음에 곧바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영숙이’에 결합되는 것으로 분석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숙이 + 이에요’의 구성으로 파악하여, ‘영숙이 + 예요 → 영숙이 예요 ’로 적게 되는 것이다. ‘책을 읽은 사람은 *영숙이 예요 .’는 잘못된 표기이다.
	받침 없는 인명	영희 + 이에요 → 영희 예요 영희 + 이어요 → 영희 여요

명사	받침 있는 명사	집 + 이에요 → 집이에요 집 + 이어요 → 집이어요
	받침 없는 명사	회사 + 이에요 → 회사예요 회사 + 이어요 → 회사여요
아니다	형용사 다음	아니 + (이)예요 → 아니예요(아녜요) 아니 + (이)어요 → 아니어요(아녀요) ※ *아니예요/*아니여요'는 잘못.

(33) 있음/*있슴

‘있음’은 ‘있-’에 명사형 어미 ‘-(으)ㅁ’이 결합된 것이므로 ‘있음’이 옳다. ‘먹- + -(으)ㅁ’일 때는 *‘먹슴’이 아니라 ‘먹음’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전에 쓰던 ‘있읍니다, 먹읍니다’의 ‘-읍니다’를 현행 맞춤법에서 ‘-습니다’로 적기로 한 사실에서 유추하여 ‘있음’, ‘없음’을 *‘있슴’, *‘없슴’으로 적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이다.

(34) 자랑스러운/*자랑스런

‘자랑스럽다’와 ‘부끄럽다’에서 온 ‘자랑스러운’과 ‘부끄러운’은 *‘자랑스런’과 *‘부끄르런’으로 줄지 않는다. 이는 ‘깁다, 늙다, 줍다, 가깝다, 무겁다, 쉽다’ 등의 활용형인 ‘기운, 누운, 주운, 가까운, 무거운, 쉬운’ 따위가 *‘긴, *늬, *준, *가깁, *무건, *쉬’으로 줄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35) 치러/*치뤘(한글 맞춤법 제18항)

‘(시험을) 치르다’는 ‘치러(치르- + -어)’, ‘치렀다(치르- + -었다)’처럼 된다. 일부에서는 *‘치루고, *치뤘, *치뤘다’로, 심지어는 *‘칠렀다’처럼 쓰기도 하나 이들은 모두 잘못이다. 또한 ‘김치를 담갔다’를 *‘김치를 담꿨다’로, ‘문을 잠갔다’를 *‘문을 잠꿨다’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담그다, 잠그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면 ‘담그- + -어/아 → 담가’, ‘잠그- + -어/아 →

잠가'와 같이 활용하므로 '문을 잠가라, 김치를 담가 먹었다'와 같이 적어야 한다.

- ㄱ. 시험을 {치른/*치룬} 후 집안에 잔치를 {치렀다/*치뤘다}.
- ㄴ. 어머니께서 김치를 {담가/*담귀/*담애} 주셔서 우리는 {담글/*담굴/*담을} 필요가 없었다.
며칠 전에 김치를 {담갔다/*담꿨다/*담졌다}.
- ㄷ. 현관문을 먼저 {잠근/*잠군} 후에 안방 문을 {잠가라/*잠귀라}.

(36) 통틀어/*통털어

‘있는 대로 모두 한데 묶다’의 뜻을 가진 말은 ‘*통털다’가 아니라 ‘통틀다’이다. ‘통틀다’는 현대국어에서 그 활용에 제약을 심하게 받고 있는 말로 주로 ‘통틀어(서), 통틀고, 통틀면’ 정도의 예만 보인다. 또한 활용형 ‘통틀어’는 현대국어에서는 부사로 쓰인다.

- ㄱ. 있는 돈을 통틀면 모두 5만 원쯤 됩니다.
부여와 공주를 통틀고 나서도 아직 3천에선 2백여 명이 모자랐다. <이청준, 춤추는 사제>
- ㄴ. 이사하는 데 통틀어 2백만 원이 들어갔다.
자녀는 아들과 딸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우릴 통틀어 경멸하는 소리는 삼가 줘. <박완서, 도시의 흥년>

(37) 퍼레지다/*퍼러지다

‘ㅎ’ 말음을 가진 색채 형용사들은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화하는 불규칙 용언이다. 활용할 때는 모음 조화에 따라 어미 ‘-어/-아’가 선택된다. 그러므로 ‘퍼렇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면 ‘퍼렇- + -어 → 퍼레’, ‘퍼렇- + -으니 → 퍼러니’ 등으로 활용하고, ‘허얏다’는 ‘허얏- + -아 지다 → 하얘지다’, ‘허영다’는 ‘허영- + -어 지다 → 허예지다’와 같이 활용한다.

기본형	-고	-지	-(으)ㄴ	-(으)니	-어/아	-었/았-	-(으)니?(의문)
까맣다	까맣고	까맣지	까만	까마니	까매(지다)	까맸다	까맣니/까마니?
꺼뭇다	꺼뭇고	꺼뭇지	꺼먼	꺼머니	꺼메(지다)	꺼뭇다	꺼뭇니/꺼머니?
빨강다	빨강고	빨강지	빨간	빨가니	빨개(지다)	빨갰다	빨강니/빨가니?
빨경다	빨경고	빨경지	빨긴	빨거니	빨게(지다)	빨겼다	빨경니/빨거니?
하얗다	하얗고	하얗지	하얀	하야니	하애(지다)	하 다	하얗니/하야니?
허영다	허영고	허영지	허연	허여니	허예(지다)	허엿다	허영니/허여니?

3. 연습 문제

[1~25]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번호	①	②	③	④	⑤
1	ㄱ(기역)	ㄷ(디귤)	ㅋ(키웁)	ㅌ(티)	ㅅ(시웁)
2	소쩍새	산뜻하다	잔득	쓱쓱	씩득
3	금 한 양	여자	요소	유대	익명
4	신여성	공염불	남존여비	남부여대	신연도
5	고양 녀석	꽤썸한 년	실 한 님	가마니 두 님	년 3 회
6	양심	개량	백분률	성공률	쌍룡
7	미립자	파림치	수류탄	구름양	육육봉
8	태능	능묘	광한루	답란	어린이난
9	최린	박성용	국련	육육삼십육	회계 연도
10	낭낭 18세	냉랭하다	연연불망	염념불망	연년생
11	들어가다	들어나다	늘어나다	돌아가다	늘어지다
12	사라지다	쓰러지다	바라보다	버러지다	부서지다
13	이것은 책이요.	예 / 아니요	돼요	읽어요	좋지요
14	잠가	담귀	가까워	주워서	도와

15	마지못해서	마지않다	하다마다	하자말자	가지 말라고
16	굽돌이	목걸이	무녀리	끄트머리	모가치
17	굽다랗다	높다랗다	짧다랗다	널따랗다	알따랗다
18	더우기	생긋이	오뎅이	일찍이	곰곰이
19	건너방	빨래방	머리방	노래방	전세방
20	맷가	찾간	곳간	숫자	횃수
21	접때	좁쌀	햇쌀	살코기	입땀
22	섭섭하다	삼가하다	깨끗하다	만만하다	서슴다
23	간편치	서슴치	정결치	흔치	다정치
24	나이배기	뚝배기	언덕배기	학배기	장승배기

[25~29]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세요.

25. 맞춤법을 열심히 공부하지 (안았다 / 았았다).
26. 그는 열심히 (공부하므료써 / 공부함으료써)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27. 얼굴이 (안돼 / 안되) 보인다.
28. (알맞은 / 알맞는) 답을 고르시오.
29. 답을 알아 (맞혀 / 맞춰) 보세요.

[30~39] 맞는 것에 ○, 틀린 것에 × 하시오.

30.
 - ① 그러면 안 돼요. () / 그러면 안 되요. ()
 - ② 일이 잘 됐다. () / 일이 잘 다. ()
 - ③ “너는 장차 훌륭한 사람이 돼라.” ()
“너는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라.” ()
 - ④ 왕께서 장차 훌륭한 사람이 돼라고 하셨다. ()
왕께서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 ()

31.

- ① 제가 할게요. () / 제가 할께요. ()
 ② 내가 할걸. () / 내가 할겘. ()

32.

- ① 있다가 보자. () / 이따가 보자. ()
 ② 집에 있다가 갔다. () / 집에 이따가 갔다. ()

33.

- ①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
 배던지 사과던지 마음대로 먹어라. ()
 ②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었다. ()
 얼마나 울었든지 눈이 퉁퉁 부었다. ()

34.

- ①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어. ()
 ②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어. ()

35.

- ① 알맞는 () / 알맞은 ()
 ② 걸맞는 () / 걸맞은 ()
 ③ 맞지 않는 일 () / 맞지 않은 일 ()
 ④ 알맞지 않는 일 () / 알맞지 않은 일 ()

36.

- ① 있습니다 () / 있읍니다 ()
 ② 있사오니 () / 있아오니 ()
 ③ 있음. () / 있슴. ()

37.

흡연을 삼가 주십시오. () / 흡연을 삼가해 주십시오. ()

38.

① 옷돈 () / 윗돈 ()

② 곁에 입는 옷: 옷옷 () / 윗옷 ()

③ 위층 () / 윗층 ()

39.

① 어음을 결제하다. () / 어음을 결재하다. ()

② 결제 서류 () / 결재 서류 ()

1. ④ (티글 → 티을)
2. ③ (잔득 → 잔뜩)
3. ① (금 한 양 → 금 한 냥)
4. ⑤ (신연도 → 신년도)
5. ⑤ (년 3 회 → 연 3 회)
6. ③ (백분률 → 백분율)
7. ⑤ (육육봉 → 육륙봉)
8. ① (태능 → 태릉)
9. ② (박성용 → 박성룡)
10. ① (낭낭 18세 → 낭랑 18세)
11. ② (들어나다 → 드러나다)
12. ④ (버리지다 → 벌어지다)
13. ① (책이요 → 책이오)
14. ② (담귀 → 담가)
15. ④ (하자말자 → 하자마자)
16. ① (굽돌이 → 굽도리)
17. ③ (짹다랄다 → 짹따랄다)
18. ① (더우기 → 더욱이)
19. ① (건너방 → 건넛방, 건넌방)
20. ① (덧가 → 대가)
21. ③ (햇쌀 → 햅쌀)
22. ② (삼가하다 → 삼가다)
23. ② (서슴치 → 서슴지)
24. ⑤ (장승배기 → 장승박이)
25. 았았다

26. 공부함으로써
27. 안돼
28. 알맞은
29. 맞혀
30. ① 돼요. ② 됐다. ③ 돼라. ④ 되라고
31. ① 할게요. ② 할걸.
32. ① 이따가 ② 있다가
33. ① 배든지 사과든지 ② 울었던지
34. 생각할는지
35. ① 알맞은 ② 걸맞은 ③ 맞지 않는 일 ④ 알맞지 않은 일
36. ① 있습니다. ② 있사오니 ③ 있음.
37. 삼가
38. ① 웃돈 ② 웃웃 ③ 위층
39. ① 결제하다. ② 결제 서류

02

띄어쓰기

1. 띄어쓰기의 원칙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

띄어쓰기의 원칙은 단어이면 띄고 그렇지 않으면 붙여 쓰는 것이다. 단어란 '국어', '맑이', '먹는다' 등과 같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단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글은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단, '철수가 책을 읽는다.'라는 문장에서 '철수가'의 '가'나 '책읽'의 '읽'과 같은 조사는 단어 이기는 하지만 앞말에 붙여 쓴다.¹⁾

단어를 띄어 쓰면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다.

첫째, 시각적인 효과를 높여 독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다음을 보자.

(ㄱ) ★★★★★

(ㄴ) ★★ ★★

(ㄱ)과 (ㄴ)을 순간적으로 보여 주고 별이 몇 개인지를 말해 보라고 하면 (ㄱ)보다

1) 조사를 단어로 처리하는 까닭은 어미에 비해 분리성이 있고,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뿐만 아니라 부사나 용언(동사, 형용사)의 활용형, 문장 등에도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ㄴ)의 개수를 더 정확하게 말한다. 이는 띄어쓰기에 의한 시각적 효과 때문이다. 이처럼 띄어쓰기는 시각적인 효과를 높여 독서의 효율을 높여 준다.

둘째, 의미 파악이 쉬워진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컨대, ‘장비가말탄다.’처럼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장비가 말을 타는 것인지 장비가 가마를 타는 것인지 그 뜻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2. 띄어쓰기 익히기

2.1. 조사



- | | | |
|---------|--------|---------|
| ① 꽃이 | ⑤ 꽃으로만 | ⑨ 어디까지나 |
| ② 꽃마저 | ⑥ 꽃이나마 | ⑩ 거기도 |
| ③ 꽃밖에 | ⑦ 꽃이다 | ⑪ 멀리는 |
| ④ 꽃에서부터 | ⑧ 꽃처럼 | ⑫ 웃고만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조사는 독립성이 없어 다른 단어 뒤에 종속적인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이, 마저, 밖에, 에서부터, 으로만, 이나마, 이다, 처럼, 까지나, 도, 는, 만’ 등은 모두 조사이다. 그래서 앞말에 붙여 쓴 것이다.

한편,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거나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 (1) ㄱ. 집에서처럼: 집-에서(조사)-처럼(조사)
 ㄴ. 학교에서만이라도: 학교-에서(조사)-만(조사)-이라도(조사)
 ㄷ. 나가면서까지도: 나가-면서(어미)-까지(조사)-도(조사)
- (2) ㄱ. 입학하면서부터였다. / 공부하기는커녕 / 수업시간에조차

2.2. 의존 명사



- | | |
|----------------------|--------------------------|
| ① 아는√ 것이 힘이다. | ④ 아는√ 이 를 만났다. |
| ② 나도 할√ 수 있다. | ⑤ 네가 뜻한√ 바 를 알겠다. |
| ③ 먹을√ 만큼 먹어라. | ⑥ 그가 떠난√ 지 가 오래다. |

의존 명사는 의미적 독립성은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 의존하여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진다. 의존 명사는 명사와 의미와 기능이 유사하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위의 ‘것, 수, 만큼, 이, 바, 지’ 등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썼다. 한편, 어떤 말은 의존 명사로만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1) 들

- ㉠ 하나의 단어에 결합하여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 접미사(→ 붙여 씀.)
 예) 남자**들**, 학생**들**
- ㉡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구조에서 ‘그런 따위’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쌀, 보리, 콩, 조, 기장√**들(등)**을 오곡(五穀)이라 한다.

(2) 뿐

- ㉢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적 뜻을 나타내는 경우: 조사(→ 붙여 씀.)
 예) 남자**뿐**이다, 셋**뿐**이다
- ㉣ 용언의 관형사형 ‘-을’ 뒤에서 ‘따름’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웃을√**뿐**이다. 쳐다봤을√**뿐**이다.

(3) 대로

- ㉤ 체언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조사(→ 붙여 씀.)
 예) 법**대로**, 약속**대로**

- ㉠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아는√대로 말한다. 약속한√대로 이행한다.

(4) 만큼

- ㉠ 체언 뒤에 붙어서 ‘그런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 조사(→ 붙여 씀.)

예) 여자도 남자만큼 일한다.

- ㉡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런 정도로’ 또는 ‘실컷’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볼√만큼 보았다. 애쓴√만큼 얻는다.

(5) 만

- ㉠ 체언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조사(→ 붙여 씀.)

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 ㉡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떠난 지 사흘√만에 돌아왔다. 온 지 1년√만에 떠나갔다.

(6) 지

- ㉠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킴: 어미(→ 붙여 씀.)

예)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 ㉡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그가 떠난√지 보름이 지났다. / 은행에 간√지 한 시간 만에 돌아왔다.

(7) 차(次)

- ㉠ 명사 뒤에 붙어서 ‘~ 하려고’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접미사(→ 붙여 씀.)

예) 연수차(研修次) 도미(渡美)한다.

- ㉡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어떤 기회에 겸해서’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고향에 갔던√차에 선을 보았다.

(8) 판

㉠ 합성어를 이루는 경우: 명사(→ 붙여 씀.)

예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

㉡ 수 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의 수효를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바둑 한판 두자. 장기를 세판이나 두었다.

2.3. 단위를 나타내는 말



- | | |
|----------|------------------|
| ① 한√개 | ⑦ 조기 한√손 |
| ② 차 한√대 | ⑧ 연필 한√자루 |
| ③ 금 서√돈 | ⑨ 버선 한√죽(=열 켄레) |
| ④ 소 한√마리 | ⑩ 집 한√채 |
| ⑤ 옷 한√벌 | ⑪ 신 두√켄레 |
| ⑥ 열√살 | ⑫ 북어 한√쾌(=스무 마리) |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는 그 앞의 수관형사와 띄어 쓴다. 위에서 ‘개, 대, 돈, 마리, 벌, 살, 손, 자루, 죽, 채, 켄레, 쾌’ 등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여서 앞말과 띄어 썼다.

한편, 다음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다.

(1)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제일 과 → 제일과

제삼 장 → 제삼장

육십칠 번 → 육십칠번

삼학년 → 삼학년

274 번지 → 274번지

제1 어학실습실 → 제1어학실습실

(2) 연월일, 시각 등을 나타내는 경우²⁾

일천구백팔십팔 년 오 월 이십 일 → 일천구백팔십팔년 오월 이십일

여덟 시 오십구 분 → 여덟시 오십구분

2) 다만, 수효를 나타내는 ‘개년, 개월, 일, 시간’ 등은 붙여 쓰지 않는다.

예 삼(개)년 육(개)월 이십 일(간) 체류하였다.

(3)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

35원 70관 42마일 26그램 3년 6개월 20일간

2.4. 수



- ①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 ② 12억 3456만 7898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따라서 ‘만, 억(億), 조(兆), 경(京), 해(垓), 자(秭), 양(穰), 구(溝), 간(澗), 정(正)’ 단위로 띄어 쓴다.

2.5.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



- | | |
|--------------------|----------------------|
| ① 국장 겸 과장 | ⑤ 책상, 결상 등이 있다. |
| ② 열 내지 스물 | ⑥ 사과, 배, 귤 등등 |
| ③ 청군 대 백군 | ⑦ 사과, 배 등속 |
| ④ 이사장 및 이사들 | ⑧ 부산, 광주 등지 |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은 띄어 쓴다. 위에서 ‘겸, 내지, 대, 및’ 등은 두 말을 이어 주는 말이고, ‘등, 등등, 등속, 등지’ 등은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이다. 그래서 모두 앞말과 띄어 썼다.

‘겸(兼)’은 한 가지 일 밖에 또 다른 일을 아울러 함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며, ‘대’는 ‘상대하는’ 또는 ‘짜이 되는, 비교되는’ 같은 뜻을 나타내기도 하는 의존 명사이고,³⁾ ‘내지(乃至)’는 ‘혹은, 또는’ 같은 뜻을 표시하는 접속 부사이며, ‘및’

3) 그러나 ‘대(짜)를 이룬다.’처럼 쓰이는 경우는 자립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또 ‘대국민 사과문, 대북한 전략, 대일(對日) 무역’과 같이 ‘대’가 앞뒤 두 단어에 관계되지 않는 구조일 때는 접두사이므로 붙여 쓴다.

은 ‘그 밖에도 또, ~와 또’로 풀이되는 접속 부사이다. 그리고 ‘등(等), 등등(等等), 등속(等屬), 등지(等地)’ 따위는 열거의 뜻을 표시하는 의존 명사이다.

2.6. 보조 용언



- ① 불이 꺼져√**간다**. / 불이 꺼져**간다**.
- ② 내 힘으로 막아√**낸다**. / 내 힘으로 막아**낸다**.
- ③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 ④ 비가 올√**듯하다**. / 비가 올**듯하다**.
- ⑤ 그 일은 할√**만하다**. / 그 일은 할**만하다**.
- ⑥ 일이 될√**법하다**. / 일이 될**법하다**.

여기서 말하는 보조 용언은 ‘-아/-어’ 뒤에 연결되는 것과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1) ‘-아/-어’ 뒤에 ‘서’가 줄어진 형식: 띄어 씀.(→ 뒤의 단어가 보조 용언이 아님.)

고기를 잡아(서) 본다(×잡아본다).

사과를 깎아(서) 드린다(×깎아드린다).

☞유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 용언임.

(시험삼아) 고기를 잡아 본다. → 잡아본다. <허용>

(그분의) 사과를 깎아 드린다. → 깎아드린다. <허용>

- (2)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붙는 경우: 띄어 씀.(→ 본용언과 의존 명사 사이의 의미적, 기능적 구분이 분명하게 드러남.)

아는 체를 한다(×아는체를한다).

비가 올 듯도 한다(×올듯도하다).

믿을 만한 하다(×믿을만은하다).

(3) 앞 단어가 합성 동사인 경우: 띄어 씀.(→ 표기 단위가 길어짐을 피하기 위함.)

밀어내 버렸다(×밀어내버렸다).

잡아매 둔다(×잡아매둔다).

매달아 놓는다(×매달아놓는다).

2.7.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 ① 김양수, 서화담,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총무공 이순신 장군
- ② 남궁역/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 ③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한국대학교 사범대학
- ④ 만성 골수성 백혈병/만성골수성백혈병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란, 어떤 체계를 가지는 구조물에서,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지시 대상물로서 파악되는 것을 이른다. 예를 들어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은 ‘한국 대학교’ 안에 있는 여러 대학 중 하나이므로 ‘한국대학교 사범대학’으로 붙여 쓸 수 있다.

‘부설(附設), 부속(附屬), 직속(直屬), 산하(傘下)’ 따위는 고유 명사로 일컬어 지는 대상물이 아니라, 그 대상물의 존재 관계(형식)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원칙적으로 앞뒤의 말과 띄어 쓴다.

원 직 학술원 부설 국어 연구소

허 용 학술원 부설 국어연구소

다만, ‘부속 학교, 부속 초등학교, 부속 중학교, 부속 고등학교’ 등은 교육학 연구나 교원 양성을 위하여 교육 대학이나 사범 대학에 부속시켜 설치한 학교를 이므로, 하나의 단위로 다루어 붙여 쓸 수 있다.

원칙 서울 대학교 사범 대학 부속 고등 학교

허용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의학 연구나 의사 양성을 위하여 의과 대학에 부속시켜 설치한 병원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 한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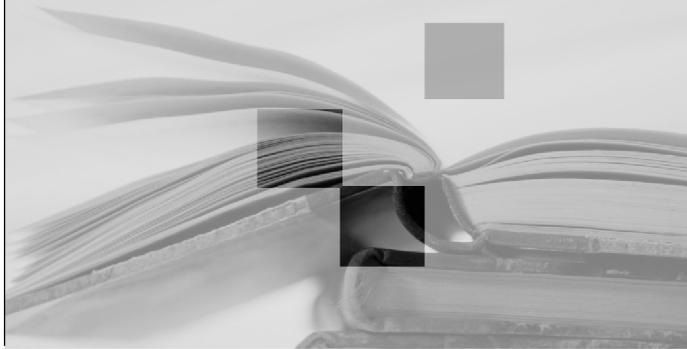
허용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한편,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전문 용어란 특정의 학술 용어나 기술 용어를 말하는데, 대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에 대응한다. 이처럼 전문 용어는 합성어의 성격으로 되어 있어서 붙여 쓸 만한 것이지만, 그 의미 파악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상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바른국어생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재



03

표준어 규정

1. 표준어의 개념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표준어 사정 원칙’ 총칙 제1항)

표준어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다. 이는 조선어 학회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총론에서 정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를 바꾼 것이다. 이렇게 바꾼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말’을 ‘표준어’로 바꾼 것은 비표준어와의 대비에서 ‘표준말-비표준말’이 말결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중류 사회’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경향도 감안하여 ‘교양 있는 사람들’로 바꾼 것이다.

셋째, ‘현재’를 ‘현대’로 한 것은 역사의 흐름에서의 구획을 인식해서다.

넷째, ‘서울말’에 대해서 어떤 이는 3대 이상 서울에 뿌리박고 사는 인구가 서울 인구의 불과 20%도 못되는 현실에 비추어, 차라리 1979년 국어 심의회안에서처럼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말’이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은 확실히 어떤 공통적인 큰 흐름이 있어, 지방에서 새로 편입해 온 어린이가 얼마 안 가 그 흐름에 동화되는 예를 자주 본다. 이 공통적인 큰 흐름이 바로 서울말인 것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옮겨 와 살 때 2세, 3세로 내려갈수록 1세의 말씨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큰 흐름의 말에 동화되는

현상도 서울말의 엄연한 존재를 증명해 준다. 그리하여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말’에서 선명하게 ‘서울말’이라고 굳혀진 것이다.

표준어를 정한 까닭은 언중(言衆)의 언어생활을 돕기 위해서이다. 말은 시대나 지역, 계층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를 그대로 두면 언중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현대’라는 시대, ‘서울말’이라는 지역,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이라는 계층으로 한정하여 표준어를 정한 것이다.

표준어는 국민 누구나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마련한 공용어(公用語)이므로, 공적(公的) 활동을 하는 이들이 표준어를 익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필수적 교양이다.¹⁾

2. 표준어 익히기

2.1. 거센소리와 관련된 표준어



- ① 꼬나풀, 나팔-꽃, 녀, 부엌, 살-괘이, 칸, 털어-먹다
- ② 가을-같이, 거시기, 분침

①은 거센소리로 소리 나므로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고, ②는 거센소리로 소리 나지 않으므로 예사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꼬나풀, 나팔-꽃, 녀, 부엌, 살-괘이, 칸, 털어-먹다’, ‘가을카리, 거시기, 분침’ 등은 표준어가 아니다.

1) 영국 같은 데서는 런던에 표준어 훈련 기관이 많이 있어, 국회의원이거나 정부 관리 등 공적인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품위 있는 표준어 발음을 가르치고 있다.

2.2. 어원 의식과 관련된 표준어



- ① 갈비, 갓모, 굴-젓, 말-곶, 밀-뜨리다
- ② 강낭-콩, 고삿, 사글-세, 울력-성당

①은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어서 표준어로 삼은 것이고, ②는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가 굳어져서 널리 쓰이고 있어서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강낭-콩, 고삿, 삭월-세, 위력-성당, 가리, 갈모, 구-젓, 말-곶, 미-뜨리다’ 등은 표준어가 아니다.

2.3. 모음조화와 관련된 표준어



- ① 부조(扶助), 사둔(査頓), 삼촌(三寸)
- ② 강충-강충, 쌍-둥이, 발가-송이, 보통이, 뽕정-다리, 오뚝-이

①은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은 것이고, ②는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것이 널리 쓰여서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강충-강충, 쌍둥이, 발가-송이, 보통이, 뽕정-다리, 오뚝-이, 부주, 사둔, 삼촌’ 등은 표준어가 아니다.

2.4. ‘ㅣ’모음 역행동화 관련 표준어



- ① 풋내기, 서울내기, 시골내기, 신출내기, 냄비, 동댕이치다
- ② 미장이, 유기장이/멧쟁이, 소금쟁이, 담쟁이-덩굴

‘ㅣ’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①처럼 ‘-내기, 냄비, 동댕이치다’는 ‘ㅣ’ 역행동화가 적용된 단어를 표준

어로 삼았다. ②의 ‘-장이’와 ‘-쟁이’는 구분하여 전통적인 기술을 가진 기술자에게만 ‘-장이’를 쓰고 그 외의 경우에는 ‘-쟁이’를 쓰는 것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꽃나기, 서울나기, 시골나기, 신출나기, 남비’ 및 ‘미쟁이, 유기쟁이, 멧장이, 소금장이, 담장이-텅굴’ 등은 표준어가 아니다.

2.5.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한 표준어



- | | |
|-------------|------------------|
| ① 가-구려 | ③ 주책, 지루하다 |
| ② 미숫-가루, 상추 | ④ (예외) 나무래다, 바라다 |

위 단어들은 모음의 현실 발음을 인정하여, 널리 쓰이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구려’와 ‘-구료’가 함께 쓰이고 있었던 것을 ‘-구려’로 통일하였다. ‘미수’는 ‘미시’로, ‘상추’는 ‘상치’로 많이 쓰이나 ‘ㅅ, ㅈ, ㅊ’ 아래에서의 ‘ㅣ’ 모음화로 보아 ‘미수, 상추’를 표준어로 삼았다. ‘주책’은 ‘주착(主着)’, ‘지루하다’는 ‘지리하다(支離-)’에서 온 말이나 ‘주책’, ‘지루하다’가 널리 쓰이므로 이를 표준어로 삼았다. ‘나무래다, 바라다’는 방언으로 보아 ‘나무라다, 바라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따라서 ‘가-구료, 나무래다, 바라다, 미숫-가루, 상치, 주착, 지리하다’ 등은 표준어가 아니다.

2.6. ‘아래, 위’와 관련된 표준어



- ① 윗-넓이, 윗-눈썹, 윗-니, 윗-도리, 윗-머리, 윗-목, 윗-몸, 윗-배
- ② 위-짹, 위-쭉, 위-총, 위-턱
- ③ 옷-국, 옷-기, 옷-돈, 옷-어른, 옷-웃

‘아래, 위’의 대립이 있는 단어는 ‘윗-’이나 ‘위-’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고,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옷-’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다. ①과 ②는 ‘아래, 위’의 대립이 있는 단어이고, ③은 ‘아래, 위’의 대립

이 없는 단어이다. ‘아래, 위’의 대립이 있는 단어 중에서 ②처럼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나 거센소리이면 ‘위-’를, 그렇지 않으면 ①처럼 ‘윗-’을 쓴다.

2.7. 발음이 비슷한 준말과 본딤말



- ① 귀찮다, 김, 짜리, 무, 생-쥐, 솔개, 온-갖
- ② 귀아-개, 돛-자리, 마구-잡이, 모이, 부스럼, 살얼음-판
- ③ 노을/놀, 막대기/막대, 머무르다/머물다, 서두르다/서둘다
시-누이/시-누/시-누, 오-누이/오-누/오-누, 외우다/외다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고,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그리고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①은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 것이고, ②는 본말만을 표준어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본말인 ‘귀치 않다, 기움, 또아리, 무우, 새양-쥐, 소리개, 온-가지’와 준말인 ‘귀-개, 돛, 막잡이, 모, 부럼(‘부스럼’의 뜻으로 쓰이는 방언일 때에 비표준어임, 다만, 음력 정월 대보름날 깨물어 먹는 견과류를 가리킬 때에는 표준어임), 살-판’ 등은 표준어가 아니다.

한편 ③은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으로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2.8.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 ① 구어-밖다, 귀-고리, 귀-뿔, 귀-지, 까딱-하면, 꼭두-각시, 내송-스럽다, 남남-거러다, 다다르다, 더부룩-하다, -(으)려고, -(으)려야, 망가-뜨리다, 멸치, 본새, 봉숭아, 뽕-따귀, 상-판대기, -습니다, 시름-시름, 아궁이, 어-중간, 잠-투정, 재봉-틀, 짓-무르다, 천장(天障)

- ② 네/예, 쇠고기/소고기, 껌다/고이다, 껌다/꾀이다, 씌다/쏘이다, 죄다/조이다, 꺾다/쫓이다
- ③ 거슴츠레-하다/게슴츠레-하다, 고란-내/코란-내, 구린-내/쿠린-내, 꺼림-하다/꺼름-하다, 나부랭이/너부렁이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①은 그러한 예이다. 따라서 ‘구워-박다, 귀엣-고리, 귀-튀, 귀에-지, 까딱-하면, 꼭둑-각시, 내 흥-스럽다, 암남-거리다/암남-하다, 다닫다, 더뿌룩-하다/듬뿌룩-하다, -(으)르려고/-(으)르라고, -(으)르려야/-(으)르래야, 망그-뜨리다, 머루치/메리치, 뽕새, 봉숭화, 뺨-따귀/뺨-따구니, 쌍-판대기, -읍니다, 시늬-시늬, 썸벅-썸벅, 아궁지, 어지-중간, 잠-투세/잠-주정, 자봉-틀, 짓-물다, 천정’ 등은 표준어가 아니다.

반면에 ②와 같은 것은 둘 다 표준어로 인정된다. ③의 예처럼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도 모두 표준어로 삼는다.

2.9. 어휘 선택 변화에 따른 표준어



- ① 낭떠러지, 설거지-하다, 애달프다, 오동-나무, 자두
- ② 구들-장, 까막-눈, 꼭지-미역, 박달-나무, 밥-소라, 지겟-다리
- ③ 개다리-소반, 검-상, 고봉-밥, 방-고래, 부항-단지, 총각-무
- ④ 멧계/우렁쉥이, 물-방개/선두리, 애-순/어린-순
- ⑤ 귀밑-머리, 까-몽개다, 빈대-떡, 생인-손, 코-주부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①은 그러한 예이다. 따라서 ‘낭, 설겅다, 애닭다, 머귀-나무, 오얏’ 따위는 표준어가 아니다.

한자어의 경우,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고,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②는 앞의 예이고, ③은 뒤의 예이다. 따라서, ‘방-돌, 맹-눈, 총각-미역, 배달-나무, 식-소라, 목-밭’ 및 ‘개다리-밥상, 맛-상, 높은-밥, 구들-고래, 뜸-단지, 알-무/알타리-무’ 따위는 표준어가 아니다.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가 그 예이다.

한편,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만 표준어로 삼는다. ⑤가 그 예이다. 따라서 ‘꿇-머리, 까-무늬다, 빈자-떡, 생안-손, 코-보’는 표준어가 아니다.

2.10. 단수 표준어



고구마, 고치다, 광주리, 까다롭다, 까치-발, 담배-공초, 담배-설대, 뒤통수-치다, 등-때기, 목-메다, 밀짚-모자, 반-나절, 부끄러워-하다, 부스러기, 부지깽이, 빠-뜨리다, 살-풀이, 셋-별, 선-머슴, 손목-시계, 쌍둥-밤, 쏜살-같이, 아주, 안절부절-못하다, 애-벌레, 언제나, 열심-히, 열어-젓히다, 전봇-대, 주책-없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위 단어들은 ‘참-감자, 낫우다, 광우리, 까닭-스럽다/까탈-스럽다, 까치-다리, 담배-꼬투리/담배-공치/담배-공추, 대-설대, 뒤쪽지-치다, 등-떠리, 목-맺히다, 보릿짚-모자, 나절-가웃, 부끄러다, 부스러기, 부지깽이, 빠-치다, 살-막이, 새벽-별, 꿇-머슴, 팔목-시계/팔뚝-시계, 쪽-밤, 쏜살-로, 영판, 안절부절-하다, 어린-벌레, 노다지, 열심

-으로, 열어-제치다, 전선-대, 주책-이다' 따위보다 압도적으로 널리 쓰여 표준어가 된 것이다.

2.11. 복수 표준어



가뭇/가물, 가엸다/가엸다, 감감-무소식/감감-소식, -거리다/-대다, 게을러-빠지다/게을러-터지다, 고깃-간/푸죽-간, 관계-없다/상관-없다, 극성-떨다/극성-부리다, 나귀/당-나귀, 넝쿨/덩굴, 넝/쪽, 눈-대중/눈-어림/눈-짐작, 느리-광이/느림-보/늘-보, 다달-이/매-달, 닭의-장/닭-장, 댕-돌/뿔-돌, 돼지-감자/똥단지, 되우/뉘통/되게, 뒗-갈망/뒗-감당, 들락-거리다/들랑-거리다, 들락-날락/들랑-날랑, 댕-전/댕-청, 땅-콩/호-콩, -뜨리다/-트리다, 마-파람/얄-바람, 만큼/만치, 말-동무/말-벗, 먹-새/먹음-새, 멀찌감치/멀찌가니/멀찍이, 모쪼록/아무쪼록, 무심-결/무심-중, 물-봉숭아/물-봉선화, 밑-층/아래-층, 바깥-벽/밭-벽, 바른/오른, 버들-강아지/버들-개지, 벌레/버러지, 변덕-스럽다/변덕-맞다, 보-조개/불-우물, 보통-내기/여간-내기/예사-내기, 볼-따구니/볼-통이/볼-때기, 부침개-질/부침-질/지짐-질, 뽕두라지/뽕루지, 삼살-개/삼사리, 서럽다/쉽다, -(으)세요/-(으)셔요, 수수-깡/수수-대, -스레하다/-스름하다, 시늬-말/흉내-말, 심술-꾸러기/심술-쟁이, 아래-위/위-아래, 아무튼/어떻든/어쨌든/하어든/여하튼, 알은-척/알은-체, 애꾸눈-이/외눈-박이, 어림-잡다/어림-치다, 어이-없다/어처구니-없다, 어저께/어제, 언덕-바지/언덕-배기, 여쭙다/여쭙다, 여태/입때, 여태-껏/이제-껏/입때-껏, 옥수수/강냉이, 우레/천둥, 의심-스럽다/의심-쩍다, -이예요/-이어요, 일일-이/하나-하나, 일찌감치/일찌거니, 자리-옷/잠-옷, 자물-쇠/자물-통, 재롱-떨다/재롱-부리다, 제-가끔/제-각기, 좀-처럼/좀-체, 쪽/편, 차차/차츰, 척/체, 철-따구니/철-딱서니/철-딱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위에 든 것이 바로 이러한 예이다.

04

외래어 표기법

1.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외래어 표기법’ 제1장)

(1) 외래어를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 까닭

외래어는 ‘담배’, ‘납포’ 등과 같이 이제는 그 어원을 잊었을 정도로 아주 국어의 한 부분이 된 것도 있지만, ‘아나운서, 넥타이’ 등과 같이 그것이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라는 의식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바캉스, 트러블’ 등과 같이 아직 자리를 굳히지 못한 것도 있다. 이들은 국어의 문맥 속에서 국어식으로 발음되며, 때로는 그 본래의 뜻이 변해 국어의 일부로 쓰이기도 한다.

외래어 표기의 목적은 국어 생활 속에 사용되는 외래어들을 통일된 방식으로 적기 위한 것이지, 외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영어 chocolate [tʃɔː kəlɪt]을 ‘초콜릿, 초컬릿, 초콜렛, 초코렛, 초코텔, 초크레트’ 등 제각각으로 적지 말고 ‘초콜릿’이라는 한 가지 형태로 고정시켜 적

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표준 표기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외국어를 말할 때에도 그대로 발음하라는 것은 아니다. 외국어의 발음 표기를 위해 새로운 기호나 부호를 도입 하자는 주장은 외래어 표기법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다. 사실 우리말과는 다른 음운 체계를 가진 외국어의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새로운 문자나 부호를 만들어야 한다면, 세계 여러 언어들에서 사용되는 소리들을 적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호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새로운 기호의 제정은 그것을 별도로 익혀야 하는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이 되며, 그러한 표기가 잘 지켜 지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외래어의 표기는 일부 전문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며, 그들이 쉽게 보고 익혀서 쓸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외래어의 1음운을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 까닭

1음운을 1기호로 적어야 기억과 표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어의 1음운이 그 음성 환경에 따라 국어의 여러 소리에 대응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1음운 1기호의 원칙을 따르기 어렵다.¹⁾ 이처럼 간혹 두 기호로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를 예상하여 ‘원칙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였다.

(3) 받침에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쓰는 까닭

외래어도 국어의 한 갈래이다. 그래서 외래어에도 국어의 말음 규칙이 적용 된다. 국어에서는, 예컨대 ‘잎’이 단독으로는 말음 규칙에 의해 [입]으로 발음되지만, ‘잎이’[이피], ‘잎으로’[이프로] 등과 같은 형태 음소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위의 일곱 글자 이외의 것도 받침으로 쓰이나, 외래어는 그러한 형태 음소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notebook’은 ‘노트북’이라는 표기를 가 정해 볼 수는 있지만, ‘노트북이’[--부키], ‘노트북을’[--부쿨]이라 하지 않고 ‘노트북이’[--부기], ‘노트북을’[--부글]이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외

1) 영어의 [l]에 대해 환경에 따라 ‘ㄹ’(호텔)과 ‘ㄴㄹ’(슬라이드, 필름)로 표기하고, 영어의 [w]에 대해 환경에 따라 ‘우’(workshop, 워크숍)와 ‘오’(waffle, 와플)로 표기하는 것도 이런 예에 해당한다.

래어는 그대로 발음 규칙에 따라 표기하는 것이 옳다. 다만, 국어의 ‘ㅅ’ 받침은 단독으로는 ‘ㄷ’으로 발음되지만 모음 앞에서는 ‘ㅅ’으로 발음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외래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racket’은 [라켓]으로 발음되지만, ‘라켓이’[라케시], ‘라켓을’[라케술]로 변동하는 점이 국어와 같다. 그러므로 발음 규칙에도 불구하고 ‘ㄷ’이 아닌 ‘ㅅ’을 받침으로 쓰게 한 것이다.

(4)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까닭

국어의 파열음에는 유성·무성의 대립이 없으므로 외래어의 무성음을 예상소리로 적을 수도 있으나, 그러면 유성음을 표기할 방법이 없다. 유성 파열음을 가장 가깝게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예상소리다. 따라서 무성 파열음은 거센소리나 된소리로 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어에 따라서, 같은 무성 파열음이 국어의 거센소리에 가까운 경우도 있고 된소리에 가까운 것도 있다. 영어의 무성 파열음은 된소리보다 거센소리에 가깝고, 프랑스어, 러시아어, 일본어의 무성 파열음은 거센소리보다 된소리에 가깝다.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무성 파열음은 거센소리 한 가지로만 표기하기로 하였다. 같은 무성 파열음을 언어에 따라 어떤 때는 거센소리로, 어떤 때는 된소리로 적는다면 규정이 대단히 번거로워질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 언어의 발음을 다른 언어의 표기 체계에 따라 적을 때, 정확한 발음 전사는 어차피 불가능하며 비슷하게만 전사된다. 그렇다면 간결성과 체계성을 살려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국어에서는 된소리가 거센소리에 비해서 그 기능 부담량이 훨씬 적다. 이러한 까닭으로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다 (카페/*까페, 파리/*빠리, 모차르트/*모짜르트 등).²⁾

(5)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를 따로 정한다고 한 까닭

외래어는 그 차용 경로가 다양하다.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귀로 들어서 차용되는 것도 있으며, 원어에서 직접 들어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제3국을

2) 그러나 빠따니(태국 지명), 푸젯(태국 지명), 호찌민(베트남 인명, 지명)처럼 자음에 3분 대립이 존재하는 태국어와 베트남어에는 파열음과 파찰음에 된소리 표기를 도입한다. (‘동남아시아 3개 언어 외래어 표기 용례집’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1호(2004. 12. 20.) 참조)

통해서 간접 차용되는 것도 있다. 또, 오래 전부터 쓰여 온 것도 있고, 최근에 들어온 것도 있다. ‘카메라, 모델’ 같은 것은 철자를 로마자읽기식으로 차용한 것이며, ‘피겨 스케이팅,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같은 것은 귀로 들어서 들어 온 것이다. ‘fan’은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도입 초기에는 ‘후양’ 이라고 하다가 현재는 ‘팬’이라 한다. 한편 ‘담배, 가방, 구두, 남포’ 같은 것은 차용된 연대가 오래되어서 일반 대중은 이들이 외래어라는 의식조차 없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온 외래어는 어떤 특정한 원칙만으로는 그 표기의 일관성을 기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같은 말이 두 가지로 발음되고, 뜻도 달리 쓰이는 것이 있다. ‘cut’은 ‘컷’이라고도 하고, ‘컷트’라고도 하는데, 출판물에 넣는 작은 삽화는 ‘컷’이라고 하고, 정구나 탁구공을 깎아서 치는 것은 ‘컷트’라고 한다.

이러한 외래어 중 이미 오랫동안 쓰여져 아주 굳어진 관용어는 그 관용을 인정하여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관용대로 적도록 하지는 것이다. 다만, 그 관용의 한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표준어를 사정하듯 하나하나 사정해서 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를 따로 정한다고 한 것이다.

2. 외래어 표기 규칙

2.1. 자음의 표기

2.1.1. 무성 파열음([k], [t], [p])

어두	※ 모음 앞 [k] → ㅋ [t] → ㅌ [p] → ㅍ	cafe[kəfeɪ] 카페 trio[triou] 트리오 Paris[pæris] 파리
어말	※ 단모음 다음 [k] → 받침 ㄱ [t] → 받침 ㅈ [p] → 받침 ㅂ	notebook[noutbuk] 노트북 cat[cæt] 캣 gap[gæp] 갭

	※ 단모음 이외의 다음 [k] → 크 [t] → 트 [p] → 프	desk[desk] 데스크 part[pa:t] 파트 stamp[stæmp] 스탬프
어중	※ 단모음과 유음·비음 이외 자음 사이 [k] → 받침 ㄱ [t] → 받침 ㅅ [p] → 받침 ㅂ	act[ækt] 액트(연극의 막)
	※ 유음·비음 앞 [k] → 크 [t] → 트 [p] → 프	Turkmenistan 투르크메니스탄 mattress[mætris] 매트리스 pineapple[painæpl] 애플

☞ **예외** 관용적 표기 예) hip[hɪp] 히프 set[set] 세트 Tibet[tɪbet] 티베트

2.1.2. 유성 파열음([g], [d], [b])

어두	※ 모음 앞 [g] → ㄱ [d] → ㄷ [b] → ㅂ	gas[gæs] 가스 desk[desk] 데스크 bulb[bʌlb] 벌브 boat[bout] 보트
	※ 자음 앞 [g] → 그 [d] → 드 [b] → 브	graph[græf] 그래프 bridge[brɪdʒ] 브리지
어말	[g] → 그 [d] → 드 [b] → 브	zigzag[zɪgzæg] 지그재그 land[lænd] 랜드 bulb[bʌlb] 벌브
어중	※ 모음 앞 [g] → ㄱ [d] → ㄷ [b] → ㅂ	flashgun[fɹæʃgʌn] 플래시건
	※ 자음 앞 [g] → 그 [d] → 드 [b] → 브	signal[signəl] 시그널 lobster[lɒbstə] 로브스터

☞ **예외** 관용적 표기 예) bag[bæg] 백 web[web] 웹

2.1.3. 마찰음([s], [z], [f], [v], [θ], [θ], [ʃ], [ʒ])

[s]	※ 어말 또는 자음 앞	mask[ma : sk] 마스크
[z]	[s] → 스	jazz[dʒæz] 재즈
[f]	[z] → 즈	graph[græf] 그래프
[v]	[f] → 프	olive[ɒlɪv] 올리브
[θ]	[v] → 브	thrill[θrɪl] 스릴
[θ]	[θ] → 스	
[θ]	[θ] → 드	
[s]	※ 모음 앞	fighting[faɪtɪŋ] 파이팅
[z]	[s] → 스	fantasy[fæntəsi] 판타지
[f]	[z] → 즈	service[sɜ : rvis] 서비스
[v]	[f] → 프	center[sentər] 센터
[θ]	[v] → 브	sign[sain] 사인
[θ]	[θ] → 스	dance[dæns] 댄스
[θ]	[θ] → 드	
[ʃ]	※ 어말 [ʃ] → 시	flash[flæʃ] 플래시
	※ 자음 앞 [ʃ] → 슈	Schmidt[ʃmit] 슈미트
	※ 모음 앞	
	[ʃɑ] → 샤	fashion[fæʃən] 패션
	[ʃæ] → 새	shopping[ʃɒpɪŋ] 쇼핑
	[ʃə] → 셔	toeshoes [təʊʃu : z] 토슈즈
	[ʃe] → 셰	leadership[li : dərʃɪp] 리더십
[ʃɔ] → 쇼		
[ʃu] → 슈		
[ʃi] → 시		
[ʒ]	※ 어말 또는 자음 앞 [ʒ] → 지	mirage[mɪra : ʒ] 미라지(프랑스 전 투기 이름, '신기루'라는 뜻)
	※ 모음 앞 [ʒ] → 즈	vision[viʒən] 비전

2.1.4. 파찰음([ts], [dz], [tʃ], [dʒ])

어말 및 자음 앞	[ts] → 츠 [dz] → 즈 [tʃ] → 치 [dʒ] → 지	Keats[ki : ts] 키츠 hitchhike[hitʃhaik] 히치하이크 bridge[bridʒ] 브리지
모음 앞	[tʃ] → 츠 [dʒ] → 즈	chart[tʃa : t] 차트 engine[éndʒin] 엔진

2.1.5. 비음([m], [n], [ŋ])

어말 및 자음 앞	[m] → 받침 ㅁ [n] → 받침 ㄴ [ŋ] → 받침 ㅇ	steam[sti : m] 스팀 popcorn[pɒpkɔ̃ : n] 팝콘 ring[riŋ] 링
[ŋ]	※ 모음과 모음 사이의 [ŋ]: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음	Singer[sí ŋə : r] 싱어

2.1.6. 유음([l])

어말 및 자음 앞	받침 ㄹ	hotel[houtel] 호텔 pulp[pʌlp] 펄프
어중	① 모음 앞에 올 때: ㄹㄹ ② 비음 앞에 올 때: ㄹㄹ ③ 비음 뒤: ㄹ	slide[slaid] 슬라이드 film[filɱ] 필름 Hamlet[hæmlit] 햄릿 Henley[henli] 헨리

2.2. 모음의 표기

개 머 애 미	[ai] → 아이 [au] → 아우 [ei] → 에이 [ɔi] → 오이 [ou] → 오 [auə] → 아워	time[taim] 타임 whitehouse[hwaɪt haʊs] 화이트하우스 skate[skeɪt] 스케이트 oil[oɪl] 오일 boat[bəʊt] 보트 tower[taʊə] 타워
이 중 머 미 애 미	[ja] → 야 [jæ] → 얘 [jə] → 여 [je] → 예 [jɔ] → 요 [ju] → 유 [jiə] → 이어 [dʒə] → 디어 [liə] → 리어 [niə] → 니어	yard[jɑ : d] 야드 yellow card[jeləʊ kɑ : rd] 옐로카드 youth hostel[ju : ð hɔstəl] 유스호스텔 Indian[ɪndjən] 인디언 Union Jack[ju : njən dʒæk] 유니언잭
이 중 머 미 애 미	[wə], [wɔ], [wou] → 워 [wɑ] → 와 [wæ] → 왜 [we] → 웨 [wi] → 위 [wu] → 우 ※ [w]가 자음 뒤에 올 때 → 두 음절로 갈라 적음. ※ [gw], [hw], [kw] → 한 음절로 붙여 적음.	key word[ki : wɔ:d] 키워드 west point[wɛst] 웨스트포인트 wool[wul] 울 swing[swɪŋ] 스윙 twist[twɪst] 트위스트 penguin[peŋgwin] 펭귄 whistle[hwɪsl] 휘슬 quarter[kwɔ: tə] 쿼터

장음은 표기하지 않음 ㉠ team[ti : m] 팀 route[ru : t] 루트

2.3. 복합어의 표기

합성어	※ 각각의 형태대로 적음.	book-end[bukend] 북엔드 flash-gun[flæʃgʌn] 플래시건
원어에서 띄어 쓴 말	※ 띄어 쓴 대로 적음. (붙여 쓸 수도 있음)	top class[topklæs] 톱 클래스/톱클래스

2.4. 인명, 지명의 표기

2.4.1. 서양의 인명과 지명

외국의 인명, 지명의 표기	원지음	Ankara 앙카라 Gandhi 간디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	관용 준수	Hague 헤이그 Caesar 시저
고유 명사의 번역명이 통용되는 경우	관용 준수	Pacific Ocean 태평양 Black Sea 흑해

2.4.2. 동양의 인명과 지명

중국	인명	과거인(1911년 신해혁명 전):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 현대인: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필요한 경우 한자 병기)	孔子 공자 聶小平 텡샤오핑
	지명	현재 안 쓰이는 지명: 우리 한자음대로 현재 지명과 동일한 지명: 중국어 표기법(필요한 경우 한자 병기)	江南 강남 廣州 광저우
일본	인명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음.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 한자를 병기할 수 있음.	伊藤博文 이토 히로부미 大阪 오사카
	지명		

☞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관용을 허용함.

- 東京 도쿄, 동경
- 上海 상하이, 상해
- 黃河 황허, 황하
- 京都 교토, 경도
- 臺灣 타이완, 대만
- 遼東半島 라오둥 반도, 요동반도

3. 외래어 표기 익히기

[1~9] 다음을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적어 보자.

[1]

- ① robot[rɔbɒt]
- ② internet[intənet]
- ③ lipstick[lipstik]
- ④ tape[teip]

[2]

- ① double[dʌbl]
- ② bus[bʌs]
- ③ head[hed]
- ④ gagman[gægman]

[3]

- ① frypan[fraipæn]
- ② sauna[sauənə]
- ③ dash[dæʃ]

[4]

- ① switch[switʃ]
- ② juice[dʒu: s]
- ③ bridge[bri:dʒ]
- ④ chance[tʃɑ : ns]

[5]

- ① lamp[læmp]
- ② hint[hint]
- ③ ink[i ŋ k]

[6]

- ① plaza[plɑ: zə]
- ② clinic[klinik]
- ③ catalogue[kætəlɒg]
- ④ club[klʌb]

[7]

- ① accessory[æksesəri]
- ② talent[tælənt]
- ③ concert[kɒnsə: t]
- ④ pose[pouz]

[8]

- ① outlet[autlet]
- ② makeup[meikʌp]
- ③ headlight[hedlait]
- ④ Los Angeles[lɒsæŋdʒələs]

[9]

- ① 孟子
- ② 毛澤東
- ③ 張國榮
- ④ 杭州
- ⑤ 札幌
- ⑥ 海南

- ⑦ 豊臣秀吉
- ⑧ 鹿兒島
- ⑨ 北海島
- ⑩ 萬里長城
- ⑪ 吉林
- ⑫ 哈爾濱

04

외래어 표기법

정답

- | | |
|-------------|------------------|
| 1. ① 로봇 | ② 인터넷 |
| ③ 립스틱 | ④ 테이프 |
| 2. ① 더블 | ② 버스 |
| ③ 헤드 | ④ 개그맨 |
| 3. ① 프라이팬 | ② 사우나 |
| ③ 대시 | |
| 4. ① 스위치 | ② 주스 |
| ③ 브리지 | ④ 찬스 |
| 5. ① 램프 | ② 힌트 |
| ③ 잉크 | |
| 6. ① 플라자 | ② 클리닉 |
| ③ 카탈로그 | ④ 클럽 |
| 7. ① 액세서리 | ② 탤런트 |
| ③ 콘서트 | ④ 포즈 |
| 8. ① 아웃렛 | ② 메이크업 |
| ③ 헤드라이트 | ④ 로스 앤젤레스/로스앤젤레스 |
| 9. ① 맹자 | ② 마오쩌둥 |
| ③ 장귀룡 | ④ 항저우 |
| ⑤ 샷포로 | ⑥ 하이난 |
| ⑦ 도요토미 히데요시 | ⑧ 가고시마 |
| ⑨ 훗카이도/북해도 | ⑩ 완리창청/만리장성 |
| ⑪ 지린/길림 | ⑫ 하얼빈 |

05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 로마자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를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까닭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 발음대로 적는 까닭은 외국인이 우리말 표준 발음에 가깝게 발음하도록 하여, 우리가 잘 알아듣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신라’는 ‘Silla’로 표기하는데 이는 외국인들이 이 단어를 [실라]로 발음하도록 하여, 우리가 잘 알아듣기 위해서이다. 그렇지 않고 ‘Sinla’로 표기한다면 외국인들은 이를 [신래]로 발음하여 우리가 잘 알아듣기 어렵게 될 것이다.

(2)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까닭

2000년 7월 현재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개정하기 전까지, 우리는 매균과 라이사위가 만든 ‘매균라이사위식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표기법에서는 반달표(~)와 어긋점(˘) 같은 부호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부호는 전산 처리가 불편하다. 이에 표기법을 개정하면서 가능하면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이

면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 까닭은 붙임표(-)는 여전히 사용하기 때문이다.

2. 로마자 표기 일람

2.1. 자음의 표기

ㄱ	g (모음 앞) k (자음 앞 또는 어말)	ㄲ	kk	ㅋ	k
ㄴ	n				
ㄷ	d (모음 앞) t (자음 앞 또는 어말)	ㄸ	tt	ㅌ	t
ㄹ	r (모음 앞) l (자음 앞 또는 어말)	ㄺ	ll		
ㅁ	m				
ㅂ	b (모음 앞) p (자음 앞 또는 어말)	ㅃ	pp	ㅍ	p
ㅅ	s	ㅆ	ss		
ㅇ	ng				
ㅈ	j	ㅉ	jj	ㅊ	ch
ㅎ	h				

2.2. 모음의 표기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a	eo	o	u	eu	i	ae	e	oe	wi
ㅙ	ㅚ	ㅜ	ㅠ	ㅣ		ㅞ	ㅟ		
ya	yeo	yo	yu	ui		yae	ye		
ㅘ	ㅙ					ㅞ	ㅟ		
wa	wo					wae	we		

3. 표기상의 유의점

- (1) ‘ㄴ’은 ‘l’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광희문 Gwanghuimun

- (2)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구미 Gumi

옥천 Okcheon

월곶[월곶] Wolgot

- (3)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처럼 ‘ㄹ’이 겹쳐서 발음될 때는 ‘ll’로 적는다.

구리 Guri

설악 Seorak

칠곡 Chilgok

신라 Silla

- (4)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 ①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백매[백매] Baengma

신문로[신문노] Sinmunno

종로[종노] Jongno

- ② ‘ㄴ, ㄹ’이 덧나는 경우

학여울[학녀울] Hangnyeoul

알약[알략] allyak

- ③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같이[가치] gachi

맞히다[마치다] machida

- ④ ‘ㄱ, ㄷ, ㅂ, ㅅ’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¹⁾

종고[조코] joko

놓다[노타] nota

잡혀[자퍼] japyeo

1)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 묵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

- (5)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압구정 A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죽변 Jukbyeon

- (6)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중앙 Jung-ang 반구대 Ban-gudae
세운 Se-un

- (7)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부산 Busan 세종 Sejong

- (8)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 (9)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제주도 Jeju-do
의정부시 Uijeongbu-si

- (10)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남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금강 Geumgang

- (11)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4. 로마자 표기 익히기

[1~50] 다음을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적어 보자.

- | | |
|---------------|-------------|
| [1] 희망 | [26] 인왕리 |
| [2] 영동 | [27] 당산동 |
| [3] 백암 | [28] 봉천 1동 |
| [4] 합덕 | [29] 종로 2가 |
| [5] 호법 | [30] 퇴계로 3가 |
| [6] 벚꽃[번꽃] | [31] 청주시 |
| [7] 한밭[한반] | [32] 함평군 |
| [8] 임실 | [33] 순창읍 |
| [9] 울릉 | [34] 독도 |
| [10] 대관령[대괄령] | [35] 경복궁 |
| [11] 왕십리[왕심니] | [36] 무량수전 |
| [12] 별내[별래] | [37] 연화교 |
| [13] 신라[실라] | [38] 선릉[설릉] |
| [14] 낱지[나치] | [39] 극락전 |
| [15] 낙성대 | [40] 안압지 |
| [16] 합정 | [41] 남한산성 |
| [17] 팔당 | [42] 화랑대 |
| [18] 셋별 | [43] 불국사 |
| [19] 울산 | [44] 현충사 |
| [20] 해운대 | [45] 독립문 |
| [21] 흥빛나 | [46] 오죽헌 |
| [22] 양주군 | [47] 축석루 |
| [23] 도봉구 | [48] 종묘 |
| [24] 신창읍 | [49] 다보탑 |
| [25] 삼죽면 | [50] 집현전 |

- | | |
|-------------------------------|---------------------------|
| [1] huimang | [26] Inwang-ri |
| [2] Yeongdong | [27] Dangsan-dong |
| [3] Baegam | [28] Bongcheon 1(il)-dong |
| [4] Hapdeok | [29] Jongno 2(i)-ga |
| [5] Hobeop | [30] Toegyero 3(sam)-ga |
| [6] beotkkot | [31] Cheongju(-si) |
| [7] Hanbat | [32] Hampyeong(-gun) |
| [8] Imsil | [33] Sunchang(-eup) |
| [9] Ulleung | [34] Dokdo |
| [10] Daegwallyeong | [35] Gyeongbokgung |
| [11] Wangsimni | [36] Muryangsujeon |
| [12] Byeollae | [37] Yeonhwagyo |
| [13] Silla | [38] Seolleung |
| [14] nachi | [39] Geungnakjeon |
| [15] Nakseongdae | [40] Anapji |
| [16] Hapjeong | [41] Namhansanseong |
| [17] Paldang | [42] Hwarangdae |
| [18] saetbyeol | [43] Bulguksa |
| [19] Ulsan | [44] Hyeonchungsa |
| [20] Haeundae/Hae-undae | [45] Dongnimmun |
| [21] Hong Bitna (Hong Bit-na) | [46] Ojukheon |
| [22] Yangju-gun | [47] Chokseongnu |
| [23] Dobong-gu | [48] Jongmyo |
| [24] Sinchang-eup | [49] Dabotap |
| [25] Samjuk-myeon | [50] Jiphyeonjeon |

06

공문서 문장 바로 쓰기¹⁾

1. 바른 문장의 요건



- (1)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 (2)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 (3) 간결해야 한다.
- (4) 평이해야 한다.

하나의 완결된 사상이나 감정 또는 생각을 나타내는 말의 단위를 문장이라고 한다. 따라서 바른 문장이 되려면 하나의 완결된 사상이나 감정 또는 생각을 명확하게 드러내어야 한다. 그렇다고 이것만으로 바른 문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문장이 하나의 완결된 사상이나 감정 또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법에 어긋난다면 결코 바른 문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른 문장의 첫째 요건은 의미의 명확성이요, 그 둘째 요건은 어법의 부합성과 자연스러움이다.

의미의 명확성과 어법의 부합성,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문장을 가급적 쉽고 간결하게 써야 한다. 문장이 길어지다 보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놓치기 일쑤요, 어법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결성과 평이성도 바른 문장의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바른 문장이란 뜻이 명확하고, 어법에 맞으며, 흐름이 자연스럽고, 간결하며, 쉬운 문장이라고 하겠다.

1) '바른 국어 생활(2008년,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에 실려 있는 '공문서 바로 쓰기1'(안효경)과 '공문서 바로 쓰기2'(김문오)'를 재편집한 것임.

2. 바르지 않은 문장

2.1. 잘못된 호응 관계



- ① 제안서,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 교부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 ②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건설처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한다.
-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하여야 한다.
- ④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중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① 주어와 서술어만 바로 연결해 보면 ‘제안서,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 교부는 ~ 교부한다.’가 된다. 앞의 ‘교부’를 삭제하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도 맞고 의미상의 중복도 해결된다.

수정 제안서,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② 이 문장의 ‘열람한다’는 타동사이므로 ‘누가 무엇을 열람하다’로 표현하거나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열람하도록 하다’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수정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건설처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또는 관계자가} 이를 열람하도록 한다.

③ 주어인 ‘상대방’이와 호응하려면 서술어는 ‘확정한’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확정된’이 되어야 한다. ‘확정한’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지만 이 문장에는 목적어가 불필요하다.

수정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하여야 한다.

④ 목적어가 놓여야 할 자리에 부사어가 놓임으로써 비문이 된 경우이다. 다른 곳에서 목적어를 찾을 필요 없이 부사어인 ‘화학물질 중’을 ‘화학물질을’이라고 바꾸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 수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2. 부자연스러운 표현

- 
- ① 사업의 목적: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에서 급증하는 생활용수를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②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③ 영남고고학회 회원 일동은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영구 보존을 위해 사적에서 해제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는 입장임.
 - ④ 전파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 무선국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⑤ 다만, 새로운 제안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되 총 사업비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 ① 이 문장은 주어가 부당하게 생략되어 부자연스럽다. ‘급증하는’ 것이 ‘생활용수’가 아니므로 ‘수요가’ 또는 ‘사용량’과 같은 주어를 넣어야 한다.

- 수정** 사업의 목적: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에서 사용량이(수요가) 급증하는 생활용수를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② 이 문장은 목적어가 부당하게 생략되어 부자연스럽다. 서술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므로 ‘다음 사항을’이라는 목적어를 넣어야 한다.

- 수정**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다음 사항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③ 이 문장은 관형어가 부당하게 생략되어 부자연스럽다. 이 문장에서는 무엇을 영구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냐가 표현되어 있지 않고, 동시에 무엇을 사적에서 해제하는 것이냐 그 대상 또한 나타나 있지 않다. 모두 보충해야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수정 영남고고학회 회원 일동은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적의 영구 보존을 위해 그 유적(가) 고분을 사적에서 해제하는 것을 강력 반대하는 입장임.

- ④ 이 문장은 부사어가 부당하게 생략되어 부자연스럽다. 부사어는 문장 성분 가운데 필수 성분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에서는 서술어로 '고시합니다'가 쓰이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라고 하는 부사어를 넣어 주면 문장이 훨씬 자연스러워진다. 또한 '의거'는 어근인데 용언처럼 사용되고 있다. '의거하여' 또는 '따라, 의하여' 등으로 바꾸어 써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수정 전파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 무선국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⑤ 이 문장은 명사구가 남용되어 부자연스럽다. 길이가 긴 표현을 간결하게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서술식 표현을 명사화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길이를 줄여줄 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내용을 명료하게 압축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 치중한 나머지 명사화를 남용하면, 그 문장은 부자연스러워지며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정보의 전달도 힘들어진다.

수정 다만, 새로운 제안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되 총 사업비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함(없음).

2.3. 바르지 않은 접속 구조

- 
- ①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
 - ② 입찰자는 사전에 제한 사항 확인 및 입찰 등록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 유의 사항, 계약서 등을 열람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③ 항공법 제7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천공항 계기착륙시설(LLZ/DME, GP)을 신설하여 사용 개시를 고시합니다.
 - ④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① 이 문장 ‘과’의 앞부분은 명사구이고 ‘과’의 뒷부분은 절인데 이들이 ‘과’로 접속되어 있다. ‘구와 구’로 바꾸기에는 뒷부분의 서술 내용이 많아 구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절과 절’을 접속 어미 ‘-고’로 연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수정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

② 이 문장에서 ‘제한 사항 확인 및’이라는 부분은 절로 표현할 것을 무리하게 구로 표현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제한 사항 확인’이라는 명사구가 ‘계약서 등을 열람하다’와 대등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로 바꾸어야 한다. 구와 절이 ‘및’으로 접속되고 있는데, 이는 ‘절과 절’을 접속 어미 ‘-고’로 연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수정 입찰자는 사전에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입찰 등록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 유의 사항, 계약서 등을 열람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③ 이 문장에서는 ‘~ 다음과 같이 □를 고시합니다’라는 문장 구조 속의 □ 부분에 ‘착륙시설을 신설하여 사용 개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형태이다. 그런데 여기서 접속 어미 ‘-어’를 경계로 앞부분은 목적어와 서술어를 가진 절의 형태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사용 개시’라는 명사구로 되어 있

어서 접속의 형평성이 깨어졌다. 두 구문을 ‘절 + 절’의 형태로 ‘-을 고시합니다’에 있다면 ‘시설을 신설하여 사용을 개시하게 된 것을 고시합니다’로 되어야 하고, 간결성을 추구하여 ‘구 + 구’의 형태로 ‘-을 고시합니다’에 있다면 ‘시설의 신설과 사용 개시를 고시합니다’로 되어야 한다.

수정 항공법 제7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천 공항 계기 착륙 시설(LLZ/DME, GP)을 신설하여 사용을 개시하게 된 것을 고시합니다.

- ④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는 ‘또는’으로 연결하는 대상이 ‘능력’과 ‘권한’이 되어야 하는데, ‘권한없는’을 붙여 씀으로써 대등 접속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처분의’는 ‘능력’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도 수식하므로 ‘권한없는’을 붙여 쓰면 곤란하고 ‘권한이 없는’이라고 띄어 써야 한다.

수정 처분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2.4. 중의적 표현



- ① 항소 또는 항고사건 <수형자 분류 처우 규칙 중 개정령안>
- ② 제39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하거나 또는 그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 <수형자 분류 처우 규칙 중 개정령안 제42조 제2항 제2호>
- ③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70조 제1항>

뜻이 둘 이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을 중의적인 문장이라 한다. 이런 중의적인 문장은 의미 해석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위 예문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문맥상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파악하여

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 ① 뜻1: ‘항소’ 또는 ‘항고 사건’
 뜻2: 항소 사건 또는 항고 사건
- ② 뜻1: ~ 형 집행 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하였을 때 또는 형 집행 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하였을 때(= 형 집행 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에 도달하였을 때)
 뜻2: ~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하였을 때 또는 형 집행 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하였을 때
 * 문맥상 뜻2의 형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제39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제39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이라고 고쳐야 일반인들이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뜻1: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
 뜻2: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
 * 문맥상 뜻2의 의미가 옳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한다.
- 수정** 과실로 (말미암아),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없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2.5. 잘못된 피동과 사동



- ① 단, 취도, 향대도, 서근도, 오란도 및 삼도의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을 제외됨.
- ②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 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할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① 이 문장은 ‘~ 수역을’을 목적으로 지니고 있으므로 서술어는 타동사로 ‘제외함’이 되어야 하는데 불필요하게 피동구문을 구성한 예이다.

수정 단, 취도, 향대도, 서근도, 오란도 및 삼도의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을 제외함.

② 이 문장은 조건절에서 ‘각종 증빙 서류 등이’가 주어이므로 서술어는 ‘작성될’이 되어야 하는데 서술어가 ‘작성할’로 표현됨으로써 비문법적인 문장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수정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 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될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2.6. 조사 또는 어미의 잘못된 사용

- 
- ① 시간적 범위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평가 목표 연도까지로 한다.
 - ②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 ④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① 조사 ‘에’와 조사 ‘에도’는 그 의미가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서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악조건에 불구하고 그들은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 “*양가 부모님의 강한 반대에 불구하고 그들은 결혼했다.”라는 표현에서 ‘도’가 빠진 ‘에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듯이 위 문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위 문맥에서는 ‘에도 불구하고’도 좋으나 ‘~에 얹매이지 않고’, ‘~와/과 상관없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수정 시간적 범위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규정이 있더라도, 규정과 상관없이) 다음 각 목의 평가 목표 연도까지로 한다.

- ② ‘~에 속하다’라는 표현이 감정이 없는 사물의 경우에는 적합하지만, 감정이 있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는 부적합하다. 유정물(有情物)에는 ‘에게’를 써서 ‘~에게 속하다’라고 해야 문법에 맞다. ‘청구에 의하여’는 ‘청구로(써)’로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수정 저당물의 경매로 (말미암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권(地上權)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 ③ ‘경우’는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의 일을 표현하는 데 자유롭기 때문에, 그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를 선택할 때 별다른 제약이 없다. 그러나 ‘때’는 의존 명사 ‘수나’ ‘줄처럼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와 관련하여 제약이 따른다.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을 예측하여 서술하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는 때’가 부자연스럽고 ‘인정할 때’가 자연스럽다.

수정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 ④ ‘-은 때’는 과거에 완료된 특정한 사건이나 행위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었을 때’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된 상황을 추정하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1회성의 완료된 사건이 아니라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여 서술하는 위와 같은 문맥에서 ‘접수된 때’는 부적절하며 ‘접수되었을 때’가 적절하다.(유사 예: 자기 몫의 밥을 {먹은 때(×)/먹었을 때(○)}에는 더 먹지 마시오.

수정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2.7. 수식어의 바르지 않은 위치



- ① 사업 목적: 충남 서·북부의 안정적인 생·용수 공급
- ② 본 사적지 내의 고분은 고고학적으로는 이 지방의 중요한 6세기의 횡혈식 고분임.
- ③ 또한 강압 수사 재발 방지를 위해 1947년부터 유지돼 온 무술경찰관 검찰청 파견제도 폐지된다.
- ④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및 지원 방안

① ‘안정적인’이라는 관형어가 위치를 잘못 잡아 ‘안정적인’이 마치 ‘생·용수’를 수식하는 것처럼 구성되었다. 일단 ‘충남 서·북부의 생·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같이 고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의’가 중복되어 약간 부자연스러우므로 앞의 ‘의’를 ‘에서 사용할’로 고치는 것이 더 좋다.

수정 사업 목적: 충남 서·북부에서 사용할 생수·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② ‘횡혈식 고분’에 대한 수식어가 네 개나 되는데, 이들을 짜임새 있게 잘 배치하지 않으면 명료한 문장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된다. ‘고고학적으로는’과 ‘중요한’은 긴밀한 구성을 이루도록 관형절로 변형할 필요가 있고, ‘이 지방의’는 ‘6세기의’ 뒤로 옮기든지 삭제하는 것이 낫겠다. 한편 ‘본(本) 사적지’는 ‘이 사적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수정 이 사적지 내의 옛무덤(고분)은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6세기(○○ 지방의) 굴식 무덤(횡혈식 고분)임.

③ ‘강압 수사 재발 방지를 위해’라는 부사어가 수식할 말은 상식적으로 볼 때, ‘폐지된다’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문장구조로는 ‘강압 수사 재발 방지를 위해’가 오히려 ‘유지돼 온’을 수식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로 말미암아 ‘무술경찰관 검찰청 파견제’가 마치 ‘강압 수사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제도인 줄 착각하게 할 우려가 있다. ‘강압 수사 재발 방지를 위해’라는 부사어를 ‘폐지된다’ 바로 앞에 두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수정 또한 1947년부터 유지돼 온 ‘무술경찰관 검찰청 파견제’도 강압 수사 재발 방지를 위해 폐지된다.

- ④ ‘효과적인’이 바로 뒤에 오는 ‘한국어’를 수식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및’으로 연결된 위 문장을 분석하여 도출되는 두 개의 표현 중에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은 자연스럽지만 ‘효과적인 한국어 지원 방안’은 부자연스러우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수정 한국어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과 이(→ 한국어 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3. 공문서 문장 바르게 다듬기

[1~10] 다음 문장을 바르게 다듬어 보자.

- [1]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위의 역사적 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그 상태로 보존함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쟁점이 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2] 사업 시행자는 상기의 주차장 시설, 상업 및 편의 시설을 사용·수익하는 기간 동안 철도 시설을 제외한 전체 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함.
- [3] 산림법 제67조 및 동법 제5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천연 보호림으로 지정·고시합니다.
- [4]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5] 정부전산정보관리소 교육 12130-632(2002. 7. 15.)의 관련입니다.
- [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7] 하천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승인 변경승인 하였던 이를 고시합니다.
- [8] 위 자격을 갖춘 자로서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시설을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업체
- [9]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이에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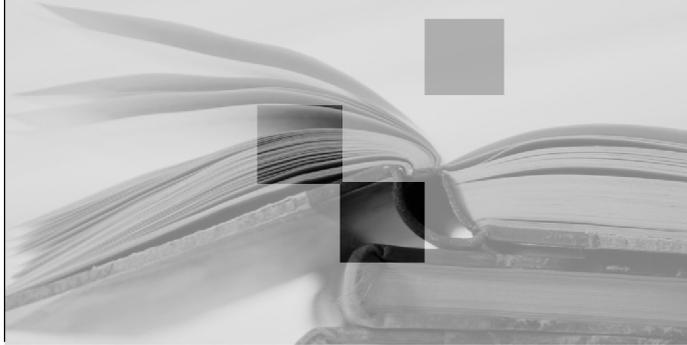
- [10] 보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암, 상피내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1] 택지 개발을 하면서 주위의 역사적 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그 상태로 보존함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2] 사업 시행자는 위의{위에 적은} 주차장 시설, 상업 시설 및 편의 시설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기간에 철도 시설을 제외한 전체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함.
- [3] 산림법 제67조 및 같은 법 제5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천연 보호림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4]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폐지한다.
- [5] 정부전산정보관리소 교육 12130-632(2002. 7. 15.)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 [6] ‘공직선거법’(또는 ‘선거 부정 방지 및 공직 선거법’, ‘공직 선거 부정 방지법’)
- [7] 하천법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 승인 내용을 다시 변경하여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8] 위 자격을 갖춘 자로서 최근 5년간, 공공 기관에서 발주한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시설을 설계하였거나 감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
- [9]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 [10] 보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암, 상피내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와 질병으로 입원이나 수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바른국어생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재



우리말 다듬기¹⁾

1. 우리말 다듬기의 원칙



첫째, 언어의 '순결성'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언어의 '규범성'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언어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말 다듬기는 국어 속에 있는 잡스러운 것을 없애고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과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우리말 다듬기는 들어온 말과 외국어를 가능한 한 고유어로 재정리한다는 것과 비속한 말이나 틀린 말을 고운 말, 표준말로 바르게 하지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고치는 일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말 다듬기란 한 마디로 고운 말, 바른 말, 쉬운 말을 가려 쓰는 것을 말한다.

현대 국어에서 우리말 다듬기가 필요한 이유는 민족정신의 확립, 민족 문화의 발전, 사회의 정화, 국어의 개량 및 언어생활의 개선 등에 있다.

우리말 다듬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언어의 '순결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다듬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외국어나 외래어를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말을 '깨끗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언어의 '규범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바로 잡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 이 글은 최용기(2003)에 실려 있는 '국어 순화 정책의 변천'에서 발췌·편집한 것임.

언어의 전통성이나 어법, 문법 등 갖가지 기준에 어긋나는 요소들을 바로잡아 전통성을 회복하고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말을 ‘알맞게 바로잡는 데 기여한다.

셋째, 언어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가꾸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말을 더욱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가꾸어 나가려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말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2. 다듬어야 할 말

2.1. 일본어

- | | |
|---|---|
| ① 가라(空, 虚) → 가짜
기스(傷) → 흠(집), 생채기
단도리(段取り) → 채비, 단속
뎃빡(鐵板) → 우두머리
뎡깡(癩癩) → 생떼
무뎃빡(無鐵砲) → 막무가내
잇빠이(一杯) → 가득, 한껏
왔다리 갔다리(-たり -たり) →
왔다 갔다 | ③ 와사비(山葵) → 고추냉이
깡깡(金柑) → 금귤, 동굴
사라(皿) → 접시
요지(楊枝) → 이쑤시개
다대기(たたき) → 다진 양념
다마네기(玉葱) → 양파 |
| ② 곤조(根性) → 본성, 심지
신뎡(新品) → 신출내기, 새내기
쇼부(勝負) → 흥정, 결판
뎡록(襤褸)나다 → 들통 나다 | ④ 가꾸목(角木) → 각목, 각재
구루마(車) → 손수레, 달구지
고바이(勾配) → 기울기, 오르막
시마이[仕舞(い)] → 마감, 마무리
시다바리(下) → 보조원, 밑일꾼 |

①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일본어이고, ②는 특히 속되게 느껴지는 생활 일본어이다. 그리고 ③은 식생활 분야에서 쓰이는 일본어이고, ④는 건설 분야에서 쓰이는 일본어이다. 이들 일본어는 모두 다듬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2. 일본식 한자어



- | | |
|-----------------------|-------------------|
| ① 나대지(裸地) → 빈 집터 | ③ 거래선(去來先) → 거래처 |
| 매점(買占) → 사재기 | 수입선(輸入先) → 수입국 |
| 사양서(仕様書) → 설명서 | 제조원(製造元) → 만든 곳 |
| 시건(施鍵)장치 → 잠금장치 | 공급원(供給源) → 공급처 |
| 취조(取調) → 문초 | 매표구(賣票口) → 표 사는 곳 |
| 택배(宅配) → 집 배달, 문 앞 배달 | 비상구(非常口) → 비상문 |
| ② 가접수(假接受) → 임시 접수 | 물가고(物價高) → 높은 물가 |
| 가처분(假處分) → 임시 처분 | 수확고(收穫高) → 수확량 |
| 공수표(空手票) → 부도 수표 | 결석계(缺席屆) → 결석신고서 |
| 공상자(空箱子) → 빈 상자 | 숙박계(宿泊屆) → 숙박부 |
| 생방송(生放送) → 현장 방송 | |

①은 지나치게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이고, ②는 일본식 한자어 접두사인 ‘가(假)-, 공(空)-, 생(生)-’ 따위가 붙은 말이며, ③은 일본식 한자어 접미사인 ‘-선(先), -원(元), -구(口), -부(附), -고(高), -계(屆)’ 따위가 붙은 말이다.

일본식 한자어에는 순수 일본 한자어와 혼독 일본 한자어가 있다. 이들을 어느 선까지 허용하고 다듬어야 하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다른 한자어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어렵다면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특히, 혼독 일본 한자어는 그 속성상 순수 일본어와 유사하여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2.3.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



- 척사(擲柶) 대회 → 윷놀이 대회
 비산(飛散) 먼지 주의 → 날림 먼지 주의
 콘크리트 양생(養生) 중 → 콘크리트 굳히는 중
 사고 다발(多發) 지역 → 사고 잦은 곳
 약을 복용(服用)하다 → 약을 먹다
 난색(暖色)을 표명(表明)하다 → 어려운 빛을 나타내다

가방을 분실(紛失)하다 → 가방을 잃어버리다
 장물을 은닉(隱匿)하다 → 장물을 숨기다
 법에 저촉(抵觸)되다 → 법에 걸리다
 전력(全力)을 경주(傾注)하다 → 온 힘을 기울이다
 식별(識別)이 용이(容易)하다 → 알아보기 쉽다
 적색등(赤色燈)이 점등(點燈)하다 → 빨간불이 켜지다
 화재(火災)를 진압(鎮壓)하다 → 불을 끄다
 촉수(觸手)를 엄금(嚴禁)하시오 → 손대지 마시오

한자어는 국어 어휘를 풍부하게 해 주고 조어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 국민이 어렵게 느낀다는 점에서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위의 예는 한자어 표현을 고유어로 바꾼 것으로, 어려운 한자어를 쓰는 것에 비해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2.4. 외국어와 외래어



- ① 다스(dozen) → 타(打)/열두 개
 다시(dash) → 줄표/대시
 도랏쿠(truck) → 화물차/트럭
 바케쓰(bucket) → 들통/양동이
 밤바(bumper) → 범퍼/완충기
 밧테리(battery) → 건전지/배터리
- ② 난닝구(running shirt) → 러닝셔츠
 도란스(transformer) → 변압기
 빵꾸(puncture) → 구멍/펑크
 스텡(stainless) → 스테인리스/안녹쇠
 오바(overcoat) → 외투/오버코트
 미손(transmission) → 변속기
 뻬뻬(sandpaper) → 사포
- ③ 올드미스(old miss) → 노처녀

- 리아카(rear car) → 손수레
 백미러(back mirror) → 뒷거울
 ④ 가라오케[空(から)orchestra] → 녹음 반주/노래방
 한쓰봉[半(はん)jupon] → 반바지
 가라쿠[空(から)cushion] → 민쿠션

①은 일본을 거쳐 들어온 서구 외래어이고, ②는 일본에서 만든 영어 약어이며, ③은 일본에서 직접 만든 영어이다. 그리고 ④는 일본어와 서구 외래어가 뒤섞인 말이다. 이들 역시 우리의 언어 환경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2.5. 변형된 우리말



- ①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방가 → 반가워요
 어쇼요 → 어서 오세요
 설 → 서울
 고딩 → 고등학생
 조아 → 좋아
 부니기 → 분위기
 ② 포그니 → 포근히
 누네티네 → 눈에 띄네
 모드니에 → 모든 이에
 함사세 → 함께 사는 세상

①은 컴퓨터 통신어이다. 이들 언어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들을 사용하게 된다. 그 결과, 언어의 굴절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의식이 무의식중에 우리에게 심어진다. 이것이 바로 통신어를 마구 부려 쓰지 말아야 할 근본 이유이다. 한편, ②는 상표명과 상호명을 변형하여 사용한 예이다. 그러한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

라서 이들도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2.6. 가치 왜곡을 조장하는 말



가정부(家政婦) → 가사 도우미
 간호원(看護員) → 간호사(看護師)
 살색 → 살구색
 핫팬츠 → 한뼘바지
 터프가이 → 쾌남아
 섹시미 → 관능미/요염함/매력적

우리 주변에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거나 잘못된 가치를 주입하는 표현, 특히 성차별적 표현이나 빈부 차별, 지역 차별, 인종 차별 등과 관련한 표현이 흔하다. 이러한 것도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3. 다듬은 말 익히기

[1~86] 다음을 다듬은 말(순화어)로 써 보자.

- | | |
|-------------------------------|-------------------|
| [1] 빠꾸(back) | [10] 기라성(綺羅星) |
| [2] 샷시(sash) | [11] 노견(路肩) |
| [3] 조끼(jug) | [12] 대절(貸切) |
| [4] 화이버(fiber) | [13] 망년회(忘年會) |
| [5] 레미콘(ready-mixed concrete) | [14] 사라(皿, さら) |
| [6] 리모컨(remote control) | [15] 쇼부(勝負, しょうぶ) |
| [7] 쇼바(shock absorber) | [16] 수순(手順) |
| [8] 고참(古參) | [17] 수출고(輸出高) |
| [9] 구보(驅步) | [18] 십팔번(十八番) |

- | | |
|------------------------|-----------------------|
| [19] 용달(用達) | [48] 삭도(索道) |
| [20] 익일(翌日) | [49] 해태(懈怠) |
| [21] 제전(祭典) | [50] 당해(當該) |
| [22] 하구언(河口堰) | [51] 교례회(交禮會) |
| [23] 소데나시(袖無し, そでなし) | [52] 웰빙 |
| [24] 엔꼬(えんこ) | [53] 이모티콘 |
| [25] 와쿠(枹, わく) | [54] 올인 |
| [26] 우와기(上衣, うわぎ) | [55] 콘텐츠 |
| [27] 유도리(←ゆとり) | [56] 네티즌 |
| [28] 지라시(散らし, ちらし) | [57] 슬로푸드 |
| [29] 후카시(吹かし, ふかし) | [58] 킷서비스 |
| [30] 겐세이(牽制, けんせい) | [59] 컬러링 |
| [31] 다이(臺, だい) | [60] 포스트잇 |
| [32] 에리(襟, えり) | [61] 클린 센터 |
| [33] 시다바리(←下張り, したばり) | [62] 블로그 |
| [34] 분배이(分配) | [63] 무빙 워크 |
| [35] 노가다(←土方, どかた) | [64] 헝그리 정신 |
| [36] 닭도리탕[←鳥(とり)湯] | [65] 투잡 |
| [37] 비까번쩍하다(びか→) | [66] 메신저 |
| [38] 뽀록나다[襤褸(ぼろ)→] | [67] 터프가이 |
| [39] 왔다리 갔다리(←たり - たり) | [68] 드레싱 |
| [40] 곤색[紺(こん)色] | [69] 그룹 홈 |
| [41] 만땅(滿tank) | [70] 다크서클 |
| [42] 소라색[空(そら)色] | [71] 매치업 |
| [43] 후롯쿠(フロック) | [72] 뉴타운 |
| [44] 조리(草履, ぞうり) | [73] 테스트 베드(test bed) |
| [45] 금번(今番) | [74] 스카이라운지 |
| [46] 금회(今回) | [75] 언론 플레이 |
| [47] 멸실(滅失) | [76] 유시시(UCC) |

- [77] 핫팬츠
- [78] 스테디셀러
- [79] 웹서핑
- [80] 타임캡슐
- [81] 핸즈프리
- [82] 워터파크
- [83] 뷰파인더
- [84] 캐릭터
- [85] 패키지 상품
- [86] 가십(gossip) 거리
- [87] 스크린도어
- [88] 옴부즈맨(ombudsman)
- [89] 러브콜
- [90] 바우처제도(voucher制度)
- [91] 브랜드파워
- [92] 싱글맘
- [93] 시시티브이(CCTV)
- [94] 랜드마크(landmark)
- [95]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 [96] 아이피티브이(IPTV)
- [97] 유비쿼터스(ubiquitous)
- [98] 블루오션
- [99] 마일리지(mileage)
- [100] 아카이브(archive)

- | | |
|---------------------|-------------------|
| [1] 후진/뒤로, 퇴짜 | [24] 떨어짐, 바닥 |
| [2] 새시(sash)/문틀/창틀 | [25] 틀 |
| ※ 자동차 따위의 차대(車臺)를 뜻 | [26] 윗도리/상의 |
| 하는 말은 새시(chassis)임. | [27] 유연/용통 |
| [3] 잔 | [28] 선전지 |
| [4] 안전모 | [29] 품재기/부풀이 |
| [5] 회반죽 차 | [30] 견제 |
| [6] 원격 조정기 | [31] 대/받침(대) |
| [7] 완충기 | [32] 깃 |
| [8] 선임(자) | [33] 보조원/밑일꾼 |
| [9] 달리기 | [34] 노느매기/분배 |
| [10] 빛나는 별 | [35] 막노동/(공사판)노동자 |
| [11] 갓길 | [36] 닭볶음탕 |
| [12] 전세 | [37] 번쩍번쩍하다 |
| [13] 송년회 | [38] 들통 나다 |
| [14] 접시 | [39] 갔다 |
| [15] 결판 | [40] 진남색/감색(紺色) |
| [16] 순서/차례 | [41] 가득/가득 채움 |
| [17] 수출량 | [42] 하늘색 |
| [18] 애창곡/단골 노래 | [43] 어중치기 |
| [19] 심부름 | [44] 가락신 |
| [20] 이튿날/다음날 | [45] 이번 |
| [21] 잔치 | [46] 이번 회 |
| [22] 강어귀 독/하굿둑 | [47] 없어짐 |
| [23] 민소매 | [48] 밧줄/하늘 찻길 |

- | | |
|------------------------------|---------------|
| [49] 제때에 하지 않음/
게을리 함/게으름 | [75] 여론몰이 |
| [50] 해당(該當)/그 | [76] 손수제작물 |
| [51] 어울모임 | [77] 한뼘바지 |
| [52] 참살이 | [78] 늘사랑상품 |
| [53] 그림말 | [79] 누리검색 |
| [54] 다걸기 | [80] 기억상자 |
| [55] 꾸림정보 | [81] 맨손통화기 |
| [56] 누리꾼 | [82] 물놀이공원 |
| [57] 여유식 | [83] 보기창 |
| [58] 늘찬배달 | [84] 특징물 |
| [59] 멋울림/발신 대기음 | [85] 꾸러미 상품 |
| [60] 붙임쪽지 | [86] 입방아 거리 |
| [61] 청백리마당 | [87] 안전문 |
| [62] 누리사랑방 | [88] 민원도우미 |
| [63] 자동길 | [89] 부름공세 |
| [64] 맨주먹정신 | [90] 복지상품권제도 |
| [65] 겹벌이 | [91] 상표경쟁력 |
| [66] 쪽지창/전달자 | [92] 홍보뜸엄마 |
| [67] 쾌남아 | [93] 상황관찰기 |
| [68] 맛깔장 | [94] 마루지 |
| [69] 자활퓨터 | [95] 음성 사기 전화 |
| [70] 눈그늘 | [96] 맞춤형 누리방송 |
| [71] 맞대결 | [97] 두루누리 |
| [72] 새누리촌 | [98] 대안시장 |
| [73] 가능터 | [99] 이용 실적 점수 |
| [74] 하늘쉼터 | [100] 자료 전산화 |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 동아.
- 국립국어원(2007), '한국 어문 규정집',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8), '바른 국어 생활(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2008-3-1/2009-3-5,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8), '바른 국어 생활(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국립
국어원 2008-3-6,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9), '바른 국어 생활(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2009-3-7, 국립국어원.
- 김문오(2008), 공문서 바로 쓰기 2, '바른 국어 생활(찾아가는 국어
문화학교)', 국립국어원.
- 김형배(2008), '한국어능력시험', 신지원.
- 박종덕(2008), '한글 맞춤법론', 파미르.
- 안효경(2008), 공문서 바로 쓰기 1, '바른 국어 생활(찾아가는 국어
문화학교)', 국립국어원.
- 정호성(2008), '한국어 어문 규범-대학행정실무과정 교육 교재
(제2기)', 교육과학기술연구원.
- 최용기(2003), '남북한 국어 정책 변천사 연구', 박이정.

편 집 : 김문오(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 학예연구관)

국립국어원 2009-3-17

바른 국어 생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재

2009년 8월 26일 인쇄

2009년 8월 31일 발행

발행인 : 국립국어원장 권재일

발행처 :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길 148(방화 3동 827)

<http://www.korean.go.kr>

전 화 : (02) 2669-9733